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KORE

2009. 12

통권 162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MESSAGING NOW COMES TO LIFE

한글 메뉴 및 SMS



LG GW300

www.lgmobile.com



- QWERTY Keypad • Live Square™
- SMS Chatting • 2.4" Wide Screen

JOIN THE TOUCH GENERATION

한글 메뉴 및 SMS

ARENA



KM900

- S-Class UI • 5MP Camera
- Wi-Fi • Dolby Mobile Sound

한글 메뉴 및 SMS

Renoir



KC910

- 5MP Camera • 3.5G/HSDPA
- 120 fps Video Recording

한글 메뉴 및 SMS

Cookie



KP500

- 3" Full Touch Screen
- Active Flash UI • Accelerometer

0-800-123-7777
(Bebas Pulsa)

LG MOBILE SHOWROOM & SERVICE CENTER

Jakarta : • ITC Rowy Mas, Tel. (021) 63866287 • Mall Taman Angrek, Tel. (021) 5639082 • ITC Cempaka Mas, Tel. (021) 4290978-79 • Mall Serayan City, Tel. (021) 72781540 • Mall Ambassador, Tel. (021) 57939654
57933590 • Pacific Place Mall, Tel. (021) 57973044-55 • ITC Fatmawati, Tel. (021) 91260046 • Grand Indonesia, Tel. (021) 23580652 • Mall Kelapa Gading 3, Tel. (021) 4507970 • Tangerang: Supermal Karawao, Tel. (021) 5473437 • Bogor: Botan Square, Tel. (0251) 8400674

LG MOBILE MASTER DEALERS

Jakarta : • Falsindo • Indokom • Dunia Phone • Star Call

LG MOBILE PARTNERS

Jakarta : • Andrew Cell, Telp. (021) 63858857 • SMS Shop, Telp. (021) 63858751 • Pancarama, Telp. (021) 63858780 • H2, Telp. (021) 6304815 • Falsindo, Telp. (021) 42880810 • Sacho Cell, Telp. (021) 5762528 • SG Call, Telp. (021) 68566626 • Miferia, Telp. (021) 66601515, (021) 66603128 • Dunia Phone, Telp. (021) 63860678 • Cibinong: • Central Communication, Telp. (021) 87920335 • Bekasi: • Dewata, Telp. (021) 8885.5178 • Bogor: • Centralindo, Telp. (0251) 8345456 • Teguh Cellular, Telp. (0251) 8322153

LG MOBILE ORIGINAL ACCESSORIES

Original Room, Tel. (021) 30010333, (021) 9852221, www.originalroom.com

CIC

LG CUSTOMER INFORMATION CENTER

Layanan 365 hari
Jakarta : (021) 727-99777
Surabaya : (031) 549-0777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01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과 연계한 노인복지사업

02 여 한의사가 믿음과 정성으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진료합니다.

03 한국 식약청의 검증을 거친 약재만 사용합니다.

04 참숯에 담근 물로 맑고 청정한 한약을 만듭니다.

05 전통 한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과학적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구현합니다.

고맙습니다,

7년 동안 한결같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솔한의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솔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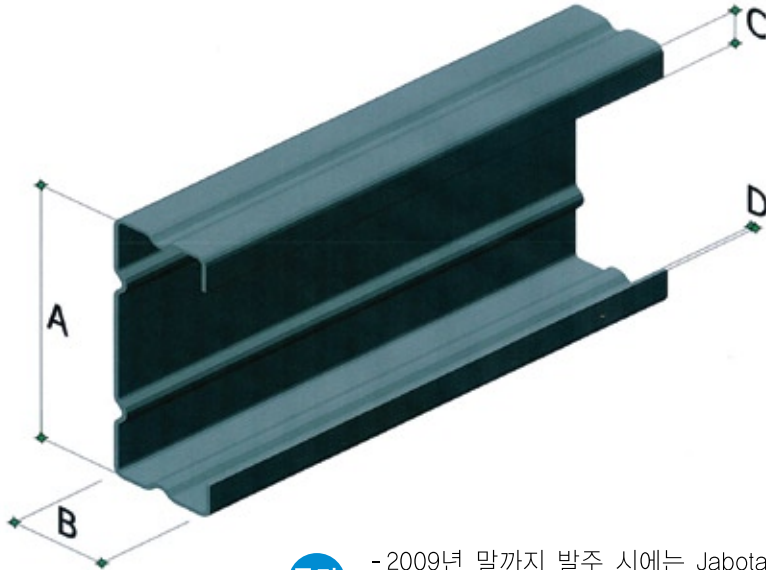
Darmawangsa Square 3층(그랜드 위자야 센터 옆)

021-7278-7410/8287

예약 부탁드립니다.



◆ CNP 신제품 생산 개시



Unit : mm

CNP (Api's New Product)				
A	B	C	D	Remarks
100			2.0	
125	50	20	2.5	
150			3.0	



- 2009년 말까지 발주 시에는 Jabotabek지역은 무료 운반하여 드림
- 구매자의 요구에 의거 최소 3m ~ 최대 12m까지 절단하여 드림(Loss 방지)

◆ EPS & PE Panel

DESCRIPTION	EPS PANEL	PE PANEL
Product Image		
Width	1,000 mm	
Thickness	50 ~ 150 mm	4 ~ 8 mm
Insulation	EPS (Fire Retardant)	Polyethylene with Al. Coating
Steel Sheet	0.35 ~ 0.7 mm	
Color	Blue, Green, Brown, Ivory, Natural Galvanized, etc.	



- 2009년 말까지 발주 시에는 Jabotabek지역은 무료 운반하여 드림
- 이음매를 줄이기 위하여 최대 12m까지 생산하여 드림
-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통풍 장치(Ventilation Louver)를 주문 제작하여 드림
- 용마루에 Valley Cover 와 Filler material을 사용함으로 비 들이침을 막을 수 있음



Restaurant & Function Hall



25% off
Monday-Friday
All Year Long



Wedding Hall & VIP Rooms

ANGKE KELAPA GADING

Kelapa Gading Square, Jl. Raya Boulevard Barat
Kelapa Gading - Jakarta 14240
Phone : 021 45866333, Fax : 021 45866200

ANGKE KETAPANG

Jl. K. H. Zainal Arifin (d/h. Ketapang Raya)
Kompleks Ketapang Indah, Jakarta 11140
Phone : 021 6343030, Fax : 021 6346633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Travel Services with

Korean Touch!

Air Ticketing

Hotel Reservation

Overseas & Domestic Travel

Tailor-made Corporate Travel

GO! 패키지 특선

“Garuda항공티켓 + 호텔숙박”

GO! to Korea

Free & Easy Seoul

그랜드 앰버서더, 노보텔(강남,독산), 이비스(명동,강남),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Health Care Seoul

(Health Care Seoul + 종합건강검진)

이비스 강남 + 건국대학교 명품헬스케어센터



GO! to Indonesia

Jakarta Business Package 65만원 부터

리츠칼튼, 몰리아, JW 메리어트, 그랑멜리아, 크라운 플라자, 아스톤 마리나

Family Package 5박7일 75만원 부터

- 고대의 도시로: 족자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 축제의 섬으로: 발리 2박3일 여행 + 자카르타 친지방문 3박4일



Garuda
Orient Holidays

국제선·국내선 항공티켓



해외 여행 패키지

왕복항공권/호텔 및 리조트/공항 및 여행지 이동차량/ 가이드/식사 포함

한인뉴스 2009.12

Operated by BPW SATRIAVI

Tel. (021) 7278-0856/9 Fax. (021) 7278-8375
michelle@garudaholidays.kr / www.garudaholidays.kr

Unit 55 3rd Fl. Dharmawangsa Square Citywalk,
Jl. Darmawangsa VI & X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한인뉴스 소망 공지

2009년 올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 첫 태양이 이제 얼마 후면 떠오르겠죠?

올 해 다짐한 소망을 이루었나요?

여러분의 새해 소망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한인뉴스 1월 신년호에 교민여러분의 새해 소망을 실어드립니다.

- 보내실 곳 : haninnews123@gmail.com
- 언제까지? : 2009년 12월 25일 까지
- 보내야 하는 것? : 여러분의 소망 + 이쁜 사진 1장
(* 성함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전 가족

여보 몰래 약속 못 지켜서 미안~
새해엔 꼭 온가족이 유럽 여행가
요. 꼭~



이 소망

지난해 어머니께서 맘이 편찮으셨어요.
새해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
다. 우리가족 화이팅!



김 엄마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이 잘 돌봐주지도
못했구나. 그래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줘
서 고맙다. 이젠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함께. 사랑해 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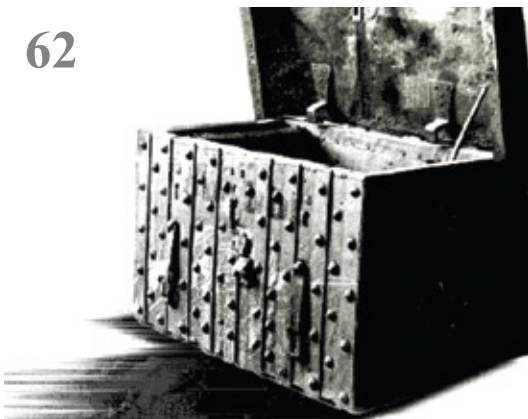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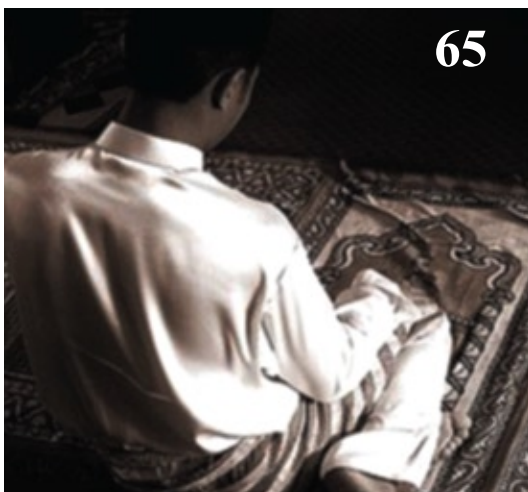




32



62



65

12 한인사회 소식

- 전 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자리에 모여
- 한국문화 “대박났네~”
- 8천만이 꿈꿀 때,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민주평통 인니지회 세미나 열려
- 인니수출입은행, 교민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제8차 세계한상대회
- 교민 미술, 사진 작가 공동으로 작품 선보여
-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담당관 방문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설명회 열어
- 한-인니 문화컨텐츠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 로타리 클럽, 강진피해돕기 자선콘서트 열어
- 포스코, 인니에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
- 포스코, UI 한국학과에 장학증서 수여
- 삼성전자, 반다아체시에 IT Learning Center 건축 기증
- 비 자카르타 공연 환성 속 성공적으로 개최
- 부산 - 수라바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 수라바야시장 한국 방문
- 수라바야시에 추모공원(코리아가든) 짓는다
- 중부자바 한인기업, 세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32 건강칼럼 사각사각 유쾌한 과일 ‘잠부 볼’

34 상공회의소 소식 차기정부, KADIN 경제 로드맵 100% 수용

37 시사포커스 17 인터뷰 내각

40.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한 아이의 비밀 1

43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결혼생활 삼십 년동안 21명 출산한 부인

46 재미가 있는 경제이야기 크리스마스의 주연(?) 산타클로스, 코카콜라의 전속 수퍼모델 산타클로스

49 묵향과 더불어 6 以聽得心(우현 임채)

50 와칭코리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북한도발 의도, 제대로 알아야

52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풍경 속의 풍경

54 독자기고 늦가을 들녘의 수수깡처럼

56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9 문화회관 안내

58 유춘강의 긍정칼럼 **로망의 빈자리는 현실이 채운다.**

62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도둑 이야기

65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종교전도와 종교건물 건축에 관한 법

69 MOVIES

70 BOOKS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12월 공지사항



전 인도네시아 한인회 한자리에 모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2일 재인니한인회는 인도네시아 각 지방 한인회장들을 초청, BSD 골프장에서 골프대회 및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행사에는 한인회 관계자와 대사관과 코트라, 한인사회의 원로들이 함께 자리해 모임을 더욱 뜻 깊게 했다.

오후 12시 시작된 골프대회는 중간 중간 내리는 비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강호성 재인니한인회 이사가 우승을 영예를 차지했고, 지동주(메달리스트), 이철훈(1st 러너)이 그 뒤를 이었다.

행사를 주최한 한인회 승은호 회장은 '인니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격려해주시는 원로분들을 모시고 금번 모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원로들과 지방한인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한인회를 세계 한인회 중 가장 모범이 되는 한인회로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오세운 원로는 "후배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고맙다. 사랑합니다"라며 진한 선후배의 정을 나눴다.

한편 이 자리에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귀국하게 되는 김병권 코트라관장의 이임인사도있었다. 김 관장은 “3년 임기 동안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튼튼한 교민사회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인니 교민 모두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그간의 인상을 전했고 큰 박수로 화답을 받았다.

골프대회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 노래숨씨 뽑내기 등으로 이날 모임은 이어졌다.



골프대회 시상자

우승: 강호성

메달리스트: 지동주

1st 러너: 이철훈

2nd 러너: 김재훈

롱기스트: 조종수

니어리스트: 안상영

럭키프라이즈: 한현봉





한국문화 “대박났네~”

- UI 한국학과 학생들이 만들어낸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발 디딜 틈 없이 성황 이뤄

올해로 두 해째를 맞는 인도네시아국립대학(이하 UI) 한국학과 주최의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11월 21일 UI 캠퍼스 9동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백 명의 학생들로 긴 줄이 이어지는 등 행사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어 모았다.

크리스틴 한국학과장은 개막식에서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인업체들의 지원으로 무난히 치러질 수 있었다며 LG, 동중, SK Keris, 무궁화유통 등 한인업체들의 후원과 장학금을 전달한 한인회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호영 대사는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대사는 세계는 정치, 경제에서 문화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대사 자신도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로부터 외교를 시작했다고 전하며 내년 한국문화원이 개원되는 만큼 양국의 친화를 위해 한국학과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전했다.

곧이어 양국을 대표하는 KOICA 단원들과 현지 제자들이 함께한 태권도 시범과 한국학과 학생들의 아름바 공연으로 행사장이 뜨겁게 달궜다. 행사장을

빈틈 하나 없이 어느새 꽉 메운 2000여명의 관중들은 공연자들의 공연에 호흡을 같이 했고 즐거움이 묻어났다.

한국영화 ‘한반도’ 상영과 UI에서 인니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아름바 공연, 비빔밥 요리 시범, 꽃보다 남자와 겨울연가 등 현지에 한류바람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를 각색해 만든 한국학생들의 카니발 공연, 한바패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풍물 공연 등이 설새 없이 이어졌고 행사장은 환호와 박수, 카메라를 든 관중들, 그리고 행사장 밖에서 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이른 아침부터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보기 위해 줄지어 서있는 학생들



한국문화의 날 행사의 주역들인 한국학과 학생들



한국 풍경을 배경 삼아 가진 포토세션 등은 그야말로 대박의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에 충분했다.

한국드라마와 영화, 노래 등 한국문화가 좋아 한국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브리기따 한국학과 학생회장은 후원업체를 찾는 것에서부터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지 몰랐다고 더 알찬 공연을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한국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국학과 학생임에 긍지를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 2층에 마련된 강의실에선 매주 한국학과 학생들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을 열어 그간 배운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쳤다. 한국문화행사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UI를 찾게 된 8명의 한국중부발전 인턴사원들은 미리 준비해온 한국 명소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같은 자리에서 갖기도 했다.





8천만이 꿈꿀 때,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민주평통 인니지회 주최 통일 글짓기 및 말하기 대회 열려 -

남북 분단의 실상, 통일의 당위성 및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글짓기 및 주장 말하기 대회가 지난 11월 7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KS)에서 민주평통 인니지회(회장 김광현) 주최로 개최되었다.

민주평통 인니지회는 매년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통일 의식과 중요성을 다시금 새기고 한민족의 동질성과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알려나고 있다.

행사에는 이동관 주인니한국대사관 공사, 승은호 한인회장, 김광현 민주평통 인니지회장 및 민주평통 위원 등 내빈과 650여 학생들이 참석하여 12명의 초등, 중고등 연사들 펼쳐나간 평화통일에 대한 주장을 경청했다.

김광현 민주평통 인니지회장은 대회사에서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통일 의지에 달려있으며 평화통일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각 연사들은 이어 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의 당위성,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의 필요성, 통일외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적절한 시사적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며 안정감

있게 표현하였고 청중들은 연사의 주장이 이어질 때마다 큰 박수로 호응을 보여줬다.

김용기(JKKS11학년)연사는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하에 적극적인 남북대화의 길 모색, 북한주민 인권개선 노력 및 주도적인 통일시대 준비, 평화 속 남북 공영 등을 통일 대비책으로 들며 8천만 우리 겨레가 통일의 한 꿈을 꿀 때 유라시아와 태평양시대의 중심에 서는 통일한국의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호소력 있게 주장했다.

주장하는 말하기가 끝나고 JKKS 어린이 합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통일 한국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밝은 미래의 축하 공연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한편대회시작전북한인권의실상을고발하는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돈 백원에 자식을 팔아야만 했고 그 돈으로 아이의 입에 빵을 물려줬던 한 어머니의 애절한 이야기, 굶어 죽어 싸늘히 길가에 버려진 북한 주민들의

시체들, 체재유지를 위한 인민군의 공개처형, 권력유지와 자신의 호화생활을 위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실체 등의 영상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 상영돼 자리한 학생들과 모든 청중들에게 북한에 대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글짓기 및 말하기 대회 시상자 명단

순위	주장말하기 부문	글짓기 부문			
		초등부	중고등부		
1	최우수상(평통사무처장상)	6-3 임한밀	11-4 김용기	6-2 김소영	11-3 정지윤
2	특별상(대사상)	6-4 정상윤	11-2 김수영	4-2 박신영	11-2 정예지
3	특별상(한인회장상)	3-2 박재형	10-2 배대현	5-3 김혜리	11-1 손정아
4	특별상(평통인니지회장상)	4-3 양원용	8-1 최지원	5-3 김혜인	11-4 고재명
5	우수상(학교장상)	5-2 태효경	10-2 장유숙	3-1 김다혜	8-2 이건
6	장려상(평통인니지회장상)	3-1 박세연	9-1 김지형	4-1 김성영	8-2 추이영



민주평통 인니지회 세미나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인도네시아지회 세미나가 지난 11월 5일 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평통 제14기 위원단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모임인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안보정책에 관한 동영상 상영 및 브리핑과 평통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현 민주평통인니지회장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 “남북한

분단 ,한반도 핵위기 등을 주제로 한 현지 대학생 말하기와 글짓기 대회, 현지 교아원 방문 위문품 전달, 밥퍼 운동과 교민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본지인 한인뉴스에 ‘평통코너’를 마련해 평통활동에 대한 동정과 인도네시아 평통위원들의 의견을 게재하기로 했으며, 한국교민(성인) 상대로 ‘통일’에 대한 수필을 현상공모하고 당선작은 한인뉴스와 본부 간행물에 게재할 방침이다.



인니수출입은행, 교민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수출입은행(이하IEB)이 지난 11월 10일 한인기업 대상으로 자카르타 술탄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와 한국대사관 주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IEB의 금융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최된 이날 설명회에는 100여 개 한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인도네시아수출입은행에서 새롭게 단장한 IEB는 수출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수출기업들의 수출보증은 물론 운영자금, 원자재구입비, 보험 및 해외수입업체 지원 등 원스톱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조정부 차관을 역임했던 마헨드라 시레가르 IEB은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기업환경이 좋지 않다”며 “IEB는 대기업보다는 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헨드라 행장은 최근 태국 푸껫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고, 한국계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니수출입은행 은행장인 마헨드라 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IEB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대출 조건으로 담보보다는 사업타당성과 비전에 비중을 두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8차 세계한상대회

- 40개국 3천 5백명 참석,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고, 모국경제 이바지 다짐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내외동포 경제인들이 한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힘을 실어주고 모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40개국 3500여명의 한상이 참가한 제8차 세계한상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한상기를 앞세운 대회장과 공동대회장이 입장하면서 막이 오른 개막식은 오프닝공연, 권영건 이사장의 개막선언, 고석화 대회장의 대회사, 안상수 시장의 환영사와 정운찬 총리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권 이사장은 “올해 대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역사적인 시기에 개최돼 그 의미가 더욱 깊고, ‘선진한국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해서는 한상들의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힘차게 개막선언을 했다.

고석화 대회장은 “지난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과는 달리 올해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해가는 모국의 모습을 보면서 치르게 됐다”며 “내외동포 한상들이 지구촌 곳곳에 국가단위, 지역 단위의 한민족 경제권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제15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제 16차 리딩CEO 포럼’ 등이 진행됐다

제 15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동포 경제 단체 간 교류활성화방안’을안건으로 상임위원과 운영위원, 자문위원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권 이사장을 포함해 고석화 대회장,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차한상대회운영위원회개최결과와제8차세계한상대회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 및 성과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 16차 운영위원회 개최지도 결정했다.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서는 차세대 한상대회를 이끌어갈 리더 18개국 68명이 참석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들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의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리더쉽’, 조장연 한국외대 경영대학원장의 ‘경제위기이후 지속성장을 통한 가치증진’, 엄홍길 상명대 석좌교수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발표에 맞춰 영 비즈니스리더들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 두번째로 참가한 이주한 씨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많은 젊은 사업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할 수 있게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모임부터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동문회가 결성되어 한생대회 이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 16차 리딩CEO 포럼에서는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과 글로벌 경제위기는 끝났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김석민 한국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교민 미술·사진 작가 공동으로 작품 선보여

교민 미술작가와 사진작가들의 작품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선보여 많은 교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1월 5일 자카르타 뿌라판짜에 위치한 구대사관저에서는 한인미술협회(회장 인치혁)과 한인사진협회 사진이야기(회장 엄종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가 개최되었다.

창립 열 돌을 기념해 선보인 제10주년 미술협회 정기전은 12명 회원들이 소재와 주제가 다양한 각자의 개성을 한껏 뽐낸 70여점의 작품들을 통해 10년이라는

세월로 얻어낸 보다 원숙해지고 차원 높은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인치혁 미협회장은 “10년의 기간이 교민사회 내에서의 미술 문화의 토대를 만들어 낸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교민사회 뿐만 아니라 인니 현지사회와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인도네시아전문 포털사이트인 인도웹(www.indoweb.org)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모임을 형성하게 된 사진협회는 23명의 작가가 60여 작품을 교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첫 회 전시라는 의미 외에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인니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해 전시회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약 10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대사관의 이동관 공사는 개막식에서 “금번 한인미협 전시회는





인치혁 미협회장(왼쪽)과 엄중환 사진협회장

판매수입을 내달 고아원을 방문해 전달하고 아이들과 놀이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진협회원이 될 수 있다며 부부동반으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출사 후 분위기 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사진협의 매력이라고 전했다.

10년이라는 획을 긋는 행사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며 “교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엄중환 사진협회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사진전시를 개최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 모은 물품과 전시된 작품의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담당관 방문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소속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언어권 국가담당관 6명이 지난 11월 25일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전민중 담당관이 인솔한 이들은 이날 대사관 방문, 인도네시아 올림픽 위원회 방문 및 체육회 시설 견학등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한인회 신기엽 문화체육담당 부회장과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지부 설립추진위원회 김광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며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자리를 가졌다.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설명회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월 3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인회 관계자를 비롯한 교민 50여명이 참석, 중앙선관위 관계자들로부터 재외국민의 주권행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최초로 2012년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택규 중앙선관위 감사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재외선거 역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은식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준비단 행정사무관은 재외선거 주요일정, 재외선거인 자격과 등록 절차, 국외 부재자 신고 절차, 선거운동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은식 사무관에 따르면 재외선거시에는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모든 일정을 관리하게 된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인 영주권자(KITAP)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국외일시체류자(KITAS 또는 임시거주자)는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광고.
-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한편 이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한-인니 문화컨텐츠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의 문화컨텐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은 지난 11월 19일 자카르타수탄호텔에서 미디어.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컨텐츠 분야의 15개 한국업체와 32개 현지관련업체 간에 정보교류와 비즈매칭 상담회를 열었다.

KOCCA의 이번 행사는 해외 각국의 문화컨텐츠산업정책을 파악하고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의 이태원 실장은 해외리딩그룹 국내 초청연수, 만화창작가 스토리텔링 해외취재지원, 국내전문가 해외파견연수, 문화컨텐츠워크숍으로 금년 문화컨텐츠 글로벌네트워크구축사업이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국내전문가 해외파견연수 차원의 금번 자카르타 방문은 이중 2개국을 7일간의 일정으로 정부기관, 기업방문 및 기업간 비즈니스매칭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실장은 B2B매칭을 통한 기업간의 해외네트워크를 구축, 상호신뢰와 호감을 갖으며 향후 비즈니스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파견국가 기업과 한국기업과의 직접적인 사업 및 MOU체결이 지속 증가하는 등 해가 거듭되면서 현지와의 네트워크구축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컨텐츠 글로벌네트워크구축사업은 한류의 범한류, 협한류 등을 완화하고 고부가가치 국가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컨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작되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소프라노 전지영 씨가 뛰어난 소리와 무대 매너로 Ich Schwebе, Morgen! 등 독일곡과 진달래꽃 등 15여 곡이 이어진 두 시간 동안의 공연 동안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로타리 클럽, 강진피해돕기 자선콘서트 열어

지난해 인니 최초 외국인회원으로 출범한 자카르타 수달만 로타리클럽(회장 이지현)은 지난 19일 밤 자카르타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지영 소프라노를 초청 각계각층의 교민 300여명을 초청, 서부수마트라 강진피해돕기 자선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말 서부수마트라 지역 강진으로 천여명 이상이 숨졌고 지금도 수천명의 부상자와 많은 이재민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로타리클럽은 이날 자선공연 수익금과 따로 모금하게 되는 성금을 강진으로 붕괴된 뼈당지역의 학교 재 건립을 위해 사용된다고 밝히고 교민들의 따뜻한 모금의 손길을 구했다.

무대에 오른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소프라노로 불리는 전지영 씨는 세계적인 이름에 걸맞게 뛰어난 소리와 무대 매너로 Ich Schwebе, Morgen! 등 독일곡과

진달래꽃 등 15여 곡이 이어진 두 시간 동안의 공연 동안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 클래식 공연 소식을 듣고 찾은 교민들은 한곡 한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피아니스트인 교민 유진씨와 심한나씨가 전지영 소프라노의 피아노 반주를 맡고 헝가리댄스를 협연하는 등 교민음악 전문가들의 공연 또한 이날 자선콘서트의 의미를 더하기에 충분했다.



포스코, 인니에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지난 12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일관제철소 합작 건설에 관한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2008년 10월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인 이 날 MOA 체결식에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크라카타우스틸의 파즈와르 부장(Fazwar Bujang) 사장과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안 켈레곤(Cilegon)시에 단계별로 총 6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기로 했다. 조강 연산 300만톤 규모의 1단계 공사는 2011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합작사의 항만, 부지, 용수, 전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브라운필드 투자로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합작사의 건설/조업 경험 보유로 정상 조업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양 회장은 MOA 체결식에서 “양사의 40여 년간 조업경험은 합작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에 충분하다”며 “포스코는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파즈와르 부장 사장은 “양사는 세계 철강업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유지했다”며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의 성공은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철광석, 석탄 등 제철원료가 풍부한 인도네시아 자원을 개발 투자해 원가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지난 '09.7월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인도네시아에서 제철원료의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투자대상 유망광구 발굴을 위한 기술검토 및 광구 조사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일관제철소 건설로 연간 3,000만톤 이상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동남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업이 국가 경제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을 포함한 핵심산업에 고품질의 철강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연평균 65억 9,000만달러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 프로젝트의 높은 관심을 표해왔다.

합작파트너인 크라카타우스틸은 지난 1970년에 설립되어 연산 24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재류 내수 시장의 60% 수준을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 UI 한국학과에 장학증서 수여

포스코청암재단은 지난 12월 1일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에서 정준양 회장, 구밀라르 루슬리와 쏘만트리(Gumilar Rusliwa Somantri) 인도네시아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대학교에 ‘아시아우수대학장학’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정준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번영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총 20명으로 포스코청암재단의 아시아우수대학장학사업을 통해 선발된 장학생들이다. 20명의 학생들은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연간 500달러씩 각각 지원받게 된다.



삼성전자, 반다아체시에 IT Learning Center 건축 기증

2009년 11월 25일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이 지역 젊은층의 IT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Samsung IT Learning Center 건물을 준공하고 반다아체시에 양도하였다. 삼성은 2005년 쓰나미 피해를 입은 반다아체 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UWI(United Way International, 世界共同募金會)와 파트너십을 맺고, 2백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피해지역 주민통합시설 및 학교 건립을 추진해왔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개의 초,중,고등학교를 건축하여 기증하였고, 오늘 Samsung IT Learning Center를 완공하여 기증함으로써 삼성희망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반다아체 시장 (Ir. Mawardy Nurdin M.Eng.Sc)을 비롯한 반다아체시 주요 인사들과 김호영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윤승철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장, 김유영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 John S. Karamoy YMM (Yayasan Mitra Mandiri)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김호영대사는 이날 반다아체 쓰나미 피해에 대한 한국인들의 깊은 관심을 전하며, 축사를 통해 IT기술의 중요성과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Global IT기업인 삼성전자의 지원을 발판으로 아체 지역이 활기차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삼성전자 윤승철 법인장은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각 진출국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반다아체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은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반다아체의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amsung IT Learning Center는 반다아체 정부가 제공한 Imam Bonjol street의 역사적 유적지 2600평방미터에 2층 건물로 지어져 연간 500여명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컴퓨터와 어학강좌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당, 회의실, 도서관 등 센터시설을 지역사회에 제공해 커뮤니티 발전의 장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에어컨,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TV, 프로젝터, 캠코더, 노트북PC 등 삼성제품들과 책장, 테이블, 의자 등 비품들도 함께 지원하였다.

삼성에는 2006년 족자카르타 지진 때도 자원봉사단, 의료봉사단을 파견 및 기부금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였고, 올해 서부 수마트라 빠당지역 지진에도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빨래방, 전화방 등을 운영하는 한편 Metro TV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삼성이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규모는 약 3백만 달러에 달한다.



비 자카르타 공연 환성 속 성공적으로 개최

‘비’의 자카르타 공연이 성황리 개최되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자카르타 망가두아에 위치한 지텍(JITEC) 공연장에는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아시아 투어 일환으로 개최된 ‘비’의 단독 콘서트가 공연시작 며칠 전까지 예상 밖의 저조한 티켓 판매로 우려했던 상황을 불식시키고 약 3500명의 관중의 환호 속에서 성황리 개최되었다.



공연 시작시간 보다 30분 늦은 8시 30분경 ‘비가’ 무대에 오르자 “정지훈”을 외치며 오랜 기다림을 담은 환호가 울려 퍼졌다. 나쁜 남자, I DO, 레이니즘 등 20여곡이 넘는 곡이 2시간 10분 동안 이어졌고 화려하고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미리 준비해온 ‘RAIN’



이 적혀있는 야광판과 봉을 흔들며 환성은 계속 이어졌다.

관객들은 앵콜 공연 시 준비해온 카메라로 연신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콘서트를 주최한 W Productions의 선 대표는 ‘비’의 자카르타 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한인사회와 교민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 - 수라바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식전 행사로 재인니 동부자바 한인회 임택선회장, 흥춘식운영위원이 양시의 교류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부산광역시 표창장을 받았으며, 재인니 동부자바 한인회에서는 수라바야시 시장에게 수마트라 빠당지역 지진피해 복구비로 30,000,000루피아를 이날 전달을 하였다. 둘째, 셋째날 수라바야시 광장에서 야외공연을 가졌는데 매 공연시 3,000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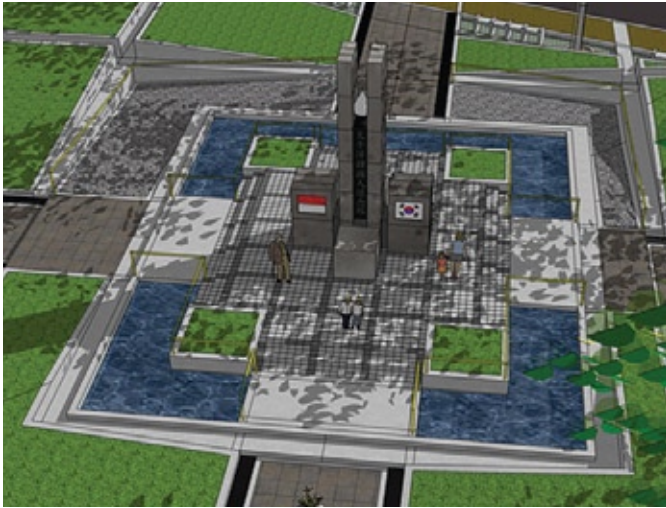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산광역시와 수라바야시 자매결연 15주년축하행사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최성달관장의 부산시립무용단 47명이 수라바야시를 방문하여 3회 공연을 가졌다.

첫날 10월 16일 수라바야 시립극장에서 주인니 한국대사관 김호영 대사님, 수라바야 Mr. Bambang 시장 내외, 수라바야시 경찰국장 Mr. Ronny, 동부자바주 관광국장, 미국, 일본, 중국 총영사 및 수라바야주제 8개국 영사와 교민, 인도네시아인 1,300여명의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2시간에 걸친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에 생각지도 못한 관중으로 인하여 긴급히 야외 스크린을 설치 할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수라바야시에 추모공원(코리아가든) 짓는다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영혼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탑을 수라바야시에 건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한인회 임택선회장은 수라바야시 시장님과 면담 후 수라바야시 청사에서 약 5분 거리인 수라바야시내 한 복판에 2,760m²의 부지를 무상으로 기여를 받아 추모탑 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호칭을 붙인 코리아 가든이란 단독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한인회에서는 2009년 11월 4째주에 착공을 하여 일차 추모탑 및 연못 조성은 2009년 12월까지 주변 조경, 조명등 기타 시설은 2010년 2월 말까지 완공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준공식을 거행 할 예정이다.



수라바야시장 한국 방문

부산광역시와 수라바야시 자매결연 15주년 축하행사에 일원으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서 지난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 시립무용단 전원 48명이 참석하여 공연을 가진 후 답례로 한인회 임택선회장과 수라바야시 Mr. Bambang 시장이 한국 부산광역시를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방문을 하였다. 10월26일 부산광역시 관사에서 축하행사를 가진 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여 대중교통시설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과 청계천, 중랑천, 울산 태화강, 부산 광안대교, 새로이 개통 된 인천대교, 서울시 교통 통제센터 및 인사동, 고궁을 견학하였다.

이에, 2003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수라바야시 Mr. Bambang 시장은 한국의 발전상에 대하여 감탄에 감탄을 하며 한국을 배우기 위하여 내년에는 많은 시 직원들을 견학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수라바야시 5년 마스터 플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를 표본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방문에 따듯이 맞이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장, 청계문화회관 관장, 교통 통제센터, 부산 광역시장, 울산 광역시장 및 관계직원,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김용봉위원장, 박성규 사무국장의 관계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중부자바 한인기업, 세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 대사관·인니관세청 중부자바 한인기업 대상 관세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호영)은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4일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부자바 교민기업들의 현지 관세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관 시 애로사항을 세관당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사관(오송 공사, 홍영규 영사, 이득수 관세관, 김재훈 행정실장) 및 인니관세청 아궁국장, 이스마르또노 중부자바 지방세관장 및 임원, 현지 교민기업대표 50여명 및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설명회는 중부자바한인회가 지난 10월 28일 대사관의 이득수 관세관을 초청, 중부자바 교민기업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민기업들의 인니 세관업무상 일어나고 있는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틀날 중부자바 관세청을 방문하여 청장 및 일부 임원진들과 상견례 이후 후발로 조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설명회에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의 아궁 국장은 봉제업체가 주류인 한인기업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의류업체 보세구역에서의 하청작업 및 잉여물품 처리 관련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스마랑 지역 통관애로 해소 지원은 물론 중부자바 세관당국과 한인기업간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세관당국과 한인기업간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재훈 중부자바한인회 회장은 “중부자바 지역 교민업체의 숙성상 관세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있는 지금 인니 세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히고 설명회 개최를 위해 많은 힘을 써준 대사관에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순회영사로서 중부자바를 방문, 전자여권 발급 신청 및 일반 민원들에 대한 교민들과의 상담해준 홍영규 영사와 김재훈 행정실장에도 고마움을 전했다.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원고 모집 기한 : 12월 15일 까지



인니 교민사회는 어느덧 4만명 규모라는 최대 외국인 교민사회로 성장해 직간접적으로 교민사회내에서 또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밀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니사회에 한국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인이 가담한 소주밀수와 불법유통이 인니 당국에 적발되어 유수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는 등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글리코리안의 모습은 세계 어느곳이든 존재합니다. 어글리코리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심성이 어글리 해서는 아닌 듯 합니다. 자국문화 우월의식, 타문화 이해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해외 동포사회와 현지국과의 불협화음이 곧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교민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짚더라도 꼭 지나가는 여정이며 그래서 꼭 넘어서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교민들과 함께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라는 주제로 해결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 1. 주제 : 어글리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 2. 모집기간 : 2009.7.10 ~ 2009.12월 15일까지
 - 3.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 4. 원고분량 : A4 용지 4매 내외
 - 5. 형식 : 자유
 - 6. 발표 : 한인뉴스 지면
 - 7. 시상일자 : 2009. 12월 중
 - 8. 시상내역 : 대상 1인, 우수상 3인,佳作 5인, 참가상. (대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으로 드리고 한인뉴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9. 보내실곳 : Haninnews123@gmail.com
 - 10. 문의처 : 한인뉴스(Tel : 521-2515)
 - 11. 담당자 : 김영민 편집위원 (HP :0818-916-566)



사각사각 유쾌한 과일 ‘잠부 볼’

시장을 지나가다 자세히 보면 특이한 모양의 과일이 있습니다. 서양 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동그랗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토마토 같기도 하고. 잠부 볼은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주변사람들이 흔히 접하고 맛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만의 열대 과일중 하나입니다.

잠부 볼은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 잠부 아이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종자의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맛과 효능은 비슷한데, 잠부 아이르는 좀 더 길쭉하고 물기가 더 있는 반면, 잠부 볼은 더 동그스름하며 사각한 단맛이 있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잠부 볼이 더 비싸고 맛있다고 치켜 올립니다.

맛 또한 씹는 순간 사각하면서 달달한 상쾌한 느낌이 느껴지는 과일이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잠부 볼의 학명은 *Syzygium malaccense* Merr. 입니다. 식물학적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떡잎식물강(Magnoliopsida), 도금양목(Myrtales), 도금양과(Myrtaceae)속하는 식물입니다. 도금양과의 식물들은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되며 소화불량과 급만성위염, 구토, 하리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정향뿐만 아니라 방부제나 방충제로 많이 쓰는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과일로 널리 알려진 구아바등이 속하는 식물군입니다.

잠부 볼은 말레이반도가 원산지입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자바섬, 필리핀, 베트남등지로 퍼졌으며, 인도를 거쳐 중국과 하와이등지로 유입되어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명으로는 말레이 애플(Malay apple), 말레이 로즈애플(Malay Rose-apple), 마운틴 애플(Mountain apple), 워터애플(water apple)로 불리우며, 말레이시아에서는 jambu merah, jambu bar, jambu melaka, jambu kapal, 태국에서는 chom-phu-sa-raek 혹은 chom-phu-daeng, 필리핀에서는 makopang-kalabau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붉은색, 초록색, 흰색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기 색깔 및 맛은 다르지만 모양은 모두 같습니다. 특히 잠부 뿌띠(Jambu putih, jambu kemang), 하얀 빛을 띄는 잠부도 있지만 맛이 시고 잘 팔지 않아 보기 힘들며, 겉 색깔이 빨간 빛을 내는 것이 제일 단맛이 강하고 유명합니다.

잠부 불을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미가 한(寒) 무독(無毒)하며, 감(甘), 미산(微酸)합니다.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 족厥음간경(足厥陰肝經)으로 들어가니, 생진윤조(生津潤燥)하며 보음양혈(補陰養血)하고 이수소종(利水消腫)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잠부 불의 생김새는 길이는 3~5cm정도로 우리의 손가락정도입니다. 만지면 딱딱하지만 살짝 누르면 들어가는 정도이며 과일껍질은 세로로 결이 있으며 결따라 울룩볼록합니다. 꼭지는 속으로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으며 모양은 서양배 모양으로 윗부분은 크나 점점 아래쪽으로 좁아집니다. 껍질은 벗기지 않고 보통 그냥 먹는데 한 입 베어 먹으면 사각하고 아삭함이 느껴집니다. 과일의 중앙에는 스폰지 같은 과육안에 씨가 함께 있습니다. 육질은 하얀색이며, 언뜻 보기에다 섬유질이 많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복숭아 맛과도 비슷하고, 단 맛이 약간 있지만 뭔가 모자란 듯한... 밍밍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과육은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우며, 물기가 있어 갈증해소에도 좋습니다. 특히 식후에 음식의 느끼함을 제거해주어 디저트로도 손상이 없는 과일입니다.

잠부 불의 100g당 영양소를 살펴보면,

수분 90.3-91.6 g
 단백질 0.5-0.7 g
 지방 0.1-0.2 g
 섬유질 0.6-0.8 g
 회 0.26-0.39 g
 칼슘 5.6-5.9 mg
 인 11.6-17.9 mg
 철 0.2-0.82 mg
 카로틴 0.003-0.008 mg
 비타민 A 3-10 I.U.
 티아민 15-39 mcg
 리보플라빈 20-39 mcg
 니아신 0.21-0.40 mg
 비타민 C 6.5-17.0 mg 입니다.



티아민 성분을 가지고 있어 수렴하는 성질을 가진 나무껍질은 치료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말린 잎을 가루로 만들어 상처난 혀, 아구창에 바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는 가려움증에 쓰이며 부종을 경감시켜주고 특히 이뇨효과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과일의 씨앗을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해열제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잎을 갈아 즙을 내어 스킨로션으로 바르기도 하며 목욕세정제와 섞어 쓰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식물을 여러부분을 변비, 당뇨, 기침, 폐기관지염, 두통의 치료제로 씁니다. 과일의 씨앗과 나무껍질, 잎은 소염제로 쓰이며 혈압조절과 호흡기관을 좋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남녀노소 간식으로 많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수분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갈증을 해소 해주는 특성이 있어서 주로 어린이들이 잘 먹는 생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과육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생으로 먹고, 루작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루작은 여러 가지 과일을 한 입 크기로 잘라, 맵고 달콤시큼한 땅콩소스에 찍어먹는 인도네시아식 샐러드입니다.

잠부 불은 9월쯤 한 차례에 걸쳐 그 과실을 거두어 들이니 그 시기를 놓치면 보기 힘든 과일입니다. 아직 하얀색이 많은 것, 초록색이 좀 나는 것은 덜 익어 맛이 그리 달지 않고 좀 떨떠름하지만, 빨갭게 잘익은 잠부 불을 한 입 베어 물면 그 사각하고 아삭한 단맛에 시원함이 곁들어져 우리의 피곤한 삶의 청량제로 손색없는 과일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차기정부, KADIN 경제 로드맵 100% 수용

- 한인상공회의소 로드맵 작성에 일익 담당
- National Summit 2009에서 재 논의



지난 10월 26일 월요일 일간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1면 헤드라인으로 정부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에서 작성한 경제발전에 관한 로드맵(Roadmap)을 신 내각의 100일 프로그램으로 거의 100% 수용하기로 했음을 전했다. 이 경제 로드맵 작성에는 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섬유, 봉제 및 신발 분야 코디네이터로 참여하여 지난 수개월동안 Kadin 및 다른 외국 상의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노동집약산업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익을 담당했다.

대선 이후 재선에 성공한 유도요노 정부는 kadin에게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도네시아 재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외국 상공회의소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를 당부했다. Kocham의 송창근 수석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있는 국제 상공인들의 연합체인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IBC)에서 일본의 Jakarta Japan Club(JJC)과 함께 이 일을 맡아 수개월간 Kadin과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22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 개선책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130 페이지에 달하는 Joint Papers for Kadin Roadmap이란 보고서를

Kadin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Kadin의 로드맵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100일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제출했으며, 이를 신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Roadmap 분야별 건의서에서 Kocham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주요 논점이 되어온 문제들 즉, 해고 문제, 퇴직금 문제 그리고 Seasonal Workers고용의 문제 등을 건의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세무정책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특히 수출 봉제기업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온 CMT 부과세 관련하여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퇴직금 적립 문제를 건의 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의 중요한 한 요인으로 젊은 노동시장과 빠른 도시화로 인한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꼽고 있으며, 정부는 늘어나는 도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동집약 산업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 로드맵의 내용들은 지난 10월 29-30일 양일간

개최된 National Summit 2009에서도 다시 논의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과 새로 인선된 장관들을 포함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 국내의 상공인들 대표 등 최소 1,200명이 참석한 National Summit에서는 기간시설 (Infrastructure), 식량, 에너지, 영세 및 중소기업, 산업 및 서비스 진흥 및 교통의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개막식과 산업 진흥(vitalizing Industri and Jasa) 분야의 논의에 참석했다.

산업진흥분야의 논의에서 Kocham이 로드맵을 통해 건의 했던 노동법, 특히 퇴직금 문제들도 이슈화 되었고, 노동부 장관 및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 주요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Kocham이 건의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정부가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빈곤률은 8-10%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5

년동안 연간 2,100조 루피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민간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관료주의, 부정부패, 법규정의 불확실성 및 중복, 토지수용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내년 민간투자 부양을 위해 기업에 재정 및 비재정 인센티브 제공할 것이며, Kadin 회장 출신으로 신 내각 산업장관으로 인선된 MS 히다얏은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부분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소득세 감면, 면세기간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ational Summit에 참석한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사회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사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Kadin 그리고 국제단체들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각



글 : 김 문 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는 한국의 취업전선을 뚝뚝 열려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기시험 이외에 1차, 2차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한 개인의 인성과약은 물론, 식품회사 같은 곳에선 음식감별 능력 또는 요리실력까지 검증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70년대 중반 필자는 K사의 증권사원 공채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최종 면접에서 꼭 산신령을 연상시키는 CEO앞에 부동자세로 앉아, “김군은 보르네오 정글에 들어가 이리저리 막 뛰어다닐 자신이 있는가?”라는 좀 우스꽝스런 질문을 받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실제로 필자는 면접에서의 언약대로 10년간 깔리만탄 정글 지역을 뛰어 다닌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의 정치 중앙무대에선 대통령이 입각시킬 장관 후보자들을 일일이 불러 직접 인터뷰를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름을 받은 대상자들이 인터뷰가 끝나면 연푸른 색의 환자 가운을 입고 육군병원의 검사실을 옮겨 다니며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대는 광경은 꼭 인기 연예인이 카메라 앞에서 쇼맨십을 발휘하는 듯한 진풍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2009년 10월 20일 오전 10시, 당선확정 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SBY의 제 7대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식이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국가원수, 내각수반과 한국의 특사로 파견된 이상득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협의회(MPR) 의사당에서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이로서 집권 제2기를 맞는 SBY 대통령은 부디오노(Boediono) 부통령을 동반자로 삼아 힘찬 비상 of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인

메가와띠의 남편이며 국민협의회 의장자격으로 취임식을 주재한 따우픽 까마스(Taufik Kiemas)가 국내외빈에 대한 호칭을 뒤범벅거리거나 SBY대통령의 이름도 불완전하게 거명하여 따우픽 자신에 대한 자질과 건강문제에 대해 우려를 자아낸 해프닝도 있었지만 여유 있고 자신감에 넘치는 SBY 대통령의 취임연설만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날 SBY 연설의 키워드는 번영, 민주주의, 사회정의로 압축되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밤 10시에는 34명의 각료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발표시간이 수차례 연기되자 어떤 난관이 가로 놓여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이유인즉, 아찌, 니아스 복구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SBY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성안하여 경제조정장관 제1순위에 올랐다가 최종 단계에서 그 자리를 핫따 라자사(Hatta Radjasa)에게 넘겨주고만 쾀또로(Kuntoro Mangkusubroto)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한다. 대안으로 제시한 다른 장관직을 모두 고사한 쾀또로에게 결국 국가개발 감독통제 대통령특보(KUKP4)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부여함으로써 전체 조각작업이 매듭을 짓게 된 셈이다. 그리고 종전까지 장관급이던 투자조정청(BKPM)을 차관급으로 하향시켜 장관급 각료들과 구분하여 20일이 경과한 11월 11일에야 신설된 부장관(Deputi Menteri) 5명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한 것도 예상 밖의 결과였다. 동시에 국방부의 제2인자 격인 총비서국장직(Sekretaris Jenderal)을 장기간 역임해 오던 샤프리 삼수딘(Sjafrie Sjamsoeddin) 중장이 수디 실랄라히 후임으로 내각장관직(Sekretariat Kabinet)에 내정되었다는 언론보도와

는 달리 무슨 연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그 자리는 공식으로 단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샤프리 장군은 SBY의 1년 후배 육사 수석 졸업생으로서 1998년 5월 폭동 당시 자카르타 지역사령관으로서 핵폭풍의 중심에 서서 5월 폭동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군이며, 그 후폭풍을 모두 비켜나며 현재까지 현역장군으로 끈질긴 수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SBY와 1973년도 국군사관학교 임관 동기 중 공군출신으로 공군참모총장, 국군사령관을 지낸 조꼬 수안또(Djoko Suyanto)가 정치안보조정장관, 경찰군 수석졸업생인 수판또(Sutanto)가 국가정보원(BIN) 원장으로 입각하였다. 육군 수석인 SBY와 함께 공군 수석의 또또 리안또(Toto Riayanto)는 국방대학원 부원장을 끝으로 3성 장군으로 예편하였으며 해군수석의 유습 솔리힌(Yusuf Solichin)은 해병대 소장으로 일찌감치 예편하였다. 1998년 5월 사태 당시 국군 사회정치국장(KASOSPOL)이라는 핵심요직에 있던 SBY는 하비비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릴 적 꿈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이라는 대망의 고지에 한발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1년 반으로 하비비 정권도 단명으로 끝나자 새로 취임한 구스 두루 대통령은 정치장군들은 정화한다는 이유로 국군총사령관인 위란또와 SBY를 예편 조치하여 각각 정치안보조정장관, 에너지광업부 장관으로 입각시킨다. 특히 이 분야에 문외한이던 SBY는 에너지광업부 고위관리 출신으로 당시 국방대학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뿌르노모(Purnomo Yusgiantoro)로부터 사사를 받아가며 성공적으로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낸다. 뿌르노모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 광산학 석사, 박사학위 보유자로서 관직과 대학강단을 오가던 학구적인 고위관리였다. SBY 장관은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공룡 국영기관인 빠르따미니(Pertamina)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을 시동 중이었으나 마침 탄핵위기에 몰린 구스 두루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시도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자 SBY는 스스로 장관직을 내던지게 된다. 이때 SBY으로부터 장관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뿌르노모였다. 이번 조각에서 뿌르노모는 SBY의 재신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라는 의외의 자리에 보임되게 된다. 군 고위장성급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독점하던 전통을 깨고 비 군인출신이 장관자리에 보임된 전례는 메가와띠 정권 당시 마또리(Matori Abdul Jalil) PKB당 당수에 이어 5년 전 유워노 수다르소노(Yuwono Sudarsono) UI대학 정치학교수가 입각한 경우이다.

세계금융 위기의 와중에서 이번 조각의 하이라이트는 경



인선과정에서 극심한 반목을 일으켰다 막상 이, 취임식 행사장에선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잡은 신, 구 보사부장관, 사진 왼쪽부터 엔당, 시띠 장관.

제팀을 여하히 드림 팀으로 구성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냐에 달려 있었다. 경제팀을 꾸리기 위해선 그 팀장이라 할 수 있는 경제조정 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구성원으로 재무장관, 경제기획장관, 무역장관, 공업장관, 국영기업체장관, 에너지광업장관 등으로 팀웍을 짜게 된다. 조각 초기 경제조정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대상자는 현 경제조정장관 겸 재무장관인 스리 물리아니, 에너지광업장관인 뿌르노모, 만디리 은행 총재인 마르또노 등이었다. 1980년대에 10년간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목따르 꾸수마앗 마자(Mochtar Kusumaatmadja)의 딸인 아르미다 알리사바나(Armida Alisjabana) 빠자자란(Pajajaran)대학 교수가 국가개발기획원장(Bappenas)으로, 그리고 70~80년대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창설자 중 한 명인 팡라이 킴(Panglay Kim)의 딸인 마리 팡에스뚜(Mari Pangestu)가 무역부장관으로 연임하여 핵심 경제부서 세 자리는 모두 여성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들 여성장관들은 모두 UI대학 경제학부 동문으로 각각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 스리 물리아니는 일리노이 대학, 마리 팡에스뚜는 캘리포니아 대학(Davis), 아르미다는 워싱턴 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3



SBY 제2기 내각의 실세들. 사진 좌로부터 부디오노 부통령, 수디 실랄라히 국가비서장관(Mensesneg),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Menkoekonomi), SBY대통령, 특히 수디 실랄라히 장관과 하따 라자사 장관은 이번 조각과정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SBY를 보필한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지고 있다.

인방이 핵심 경제장관직을 독점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원만한 팀웍이 기대되는 반면, 보건부장관 인선을 둘러싸고는 3인의 여성간에 노골적인 반목이 매스컴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종교단체인 무하마디야(Muhammadiyah) 출신의 시띠 화딜라 수빠리(Siti Fadilah Supari) 장관은 소속단체의 성향대로 반미적인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보건부장관으로 유임되는 쪽으로 점쳐져 왔으나 조각이 압박함에 따라 경질 쪽으로 급전회하면서 수하르또 정권 말기 보건부장관을 지낸 화릿 물룩(Farid Anfasa Moeluk)의 부인이며 UI대학 의과대학의 안과교수인 닐라 물룩(Nila Djuwita Moeloek)가 등장하였다. 대통령 면접과 건강검진까지 받는 모습이 비쳐지면서 그녀가 낙점 받는가 싶었으나 막상 발표 순간엔 그녀의 이름은 빠지고 전혀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았던 엔당 스티아닝시(Endang Sedyaningsih) 보건부 연구소장이 입각하여 관련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닐라 교수에서 엔당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궁은 그녀가 스트레스 검사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다는 수궁하기 어려운 코멘트를 내어 놓았으며 연임에 실패한 전임 수빠리 장관은 자신이 장관 재임 시 신임 엔당 장관을 두고 조류독감 세균을 해외로 무단 반출하여 그녀를 징계차원에서 한직으로 좌천시킨 적이 있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어엿은 여성출신 장관으로는 스리 물리야니, 마리 빵에스뚜 이외에 보건부장관, 국가개발기획원 장관, 여성 및 아

동보호부 장관이 새로 입각하여 총 5명으로 늘게 되었다. 여성 및 아동보호부 장관에 취임한 린다 사리(Linda Amalia Sari) 장관은 아굼 구멜라(Agum Gumela) 예비역 중장의 부인으로서 평소 여성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는 것이 증용사유였으나 남편의 후광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66세대의 동지로서 유습갈라 진영의 선대위원장이었던 하호미 이 드리스 전 공업부장관, 대선기간 중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여 유습갈라를 적극 지원하였던 소피안 와난디 경총회장도 유습갈라의 귀향과 함께 향후 그의 처신이 주목된다. 골까르 당내에서 항상 유습 갈라와 대립각을 세우며 아부리잘 바끄리와 연합하여 SBY를 지지하였던 아끄바르 탄중(Akbar Tanjung) 만이 골까르당의 자문위원장을 맡아 66세대의 명맥을 유지하는 주자로 남게 되었다. 2009년 10월 금권을 무기로 삼아 골까르당의 당권을 장악한 아부리잘 바끄리는 자신을 추종하여 유습 갈라 진영에서 집단 이탈하였던 아굼 락소노, 히다얏, 화렐 모하맛을 골까르당 몫으로 추천하여 각각 사회복지조정장관, 공업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입각시켰으며, 그와 절친한 찌찝 샤립(Cicip Syarief)을 신설되는 교통부 장관으로 적극적으로 천거하였으나 부장관직은 전문관료를 위주로 인선한다는 원칙에 밀려 일단은 좌절되고 말았다. 찌찝은 바끄리가 거쳐왔던 정치 등용문인 청년실업가(Hipmi)회장 자리를 이어 받으며 바끄리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죽마고우였으며 현재 따만 리아(Taman Ria) 유원지와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

를 산하에 두고 있는 아리오비모(Ariobimo)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1980년대 초부터 몇몇 한국 기업인들과 친분을 쌓아온 지한파(知韓派)이기도 하다.

이번 조각에서 종전의 관행을 깬 최초라는 기록도 보여주고 있다. 1965년 수하르토 정권 이래 내무부장관 자리는 정권 유지의 보루로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측근으로서 3성 내지 4성급 육군장성 출신이 차지하던 자리였으나 이번 조각에서 비 군부출신인 현직 서부 수마트라 주지사인 가마완 화우지(Gamawan Fauzi)가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서부 수마트라 역내 솔록(Solok)에서 출생하여 그 지역 지방 관료로 성장하면서 솔록 군수를 2차례 연임하고 PDIP당의 지지를 얻어 서부 수마트라 주지사에 등극하였으나 2009년 대선에선 SBY지지로 선화하여 한 SBY에게 큰 원군이 되어준 공치사로 보은을 받은 셈이다. 또 다른 최초 기록은 역대 육군출신의 고위장성만이 맡아오던 국가정보원(BIN) 자리에 경찰청장 출신인 수판또 예비역 대장이 임명된 것도 파격적인 인사였다. 수판또 청장 재임시절 동부자바 말랑(Malang)시 교외에서 벌어진 테러범들과의 교전에서 아자리(Azari) 등 주범들을 사살한 실적을 보여주었으며 뒤이어 취임한 현 밤방 누리 경찰청장은 매리엇,리츠칼튼 호텔 테러가 발생하자 누리 톱(Noordien M Top)을 비롯한 23명의 용의자들을 모두 사살하거나 체포하는 개가를 올리게 된 점을 감안하여 국가정보원의 수장에 경찰 출신을 앉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예산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국영기업체장관 직엔 아제 출신의 전문관료로서 아제 주지사 대행과 국영기업인 불록(PT.Bulog) 사장을 지낸 무스타파 아부바카르(Mustafa Abubakar)가 기용되었으며 파푸아 출신의 상징적인 인물인 후레디 넘베리(Freddy Numberi)는 종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한 단계 올려 교통부장관에 기용됨으로서 분쟁지역에 대한 지역안배를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넘베리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10월 27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인 꼬따 기차역(Stasiun Kota)을 불시 방문하여 역사(驛舍)가 불길하고 역장과 부역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이들 둘을 보직 해임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여주며 향후 공식사회에 찬바람을 몰고 올 것이란 전조를 보여주었다.

이슬람교도 이외의 종교분포는 개신교 3명, 카톨릭 1명, 힌두교 1명으로서 베니 무르다니 장군이 국군사령관으로 재임할 당시 기독교계 장관이 7~8명에 이르던 전성 시기에 비하

면 미흡하지만 최근 10년간 진행된 이슬람교도들이 장관직을 독점하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한편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지 3주가 채 안된 지난 11월 초에는 아직 재임기간이 채 2년이 안된 3군 참모총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하였다. 현직 전략사령관인 조지 토이수따(George Toisutta) 중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기용되어 외관상으로는 순리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하지만 말루꾸 지역 암본족인 토이수따 장군을 내세운 명분은 이번 조각에서 소외되어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는 말루꾸 지역민에 대한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재임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한 때조 에디(Tedjo Edhi) 제독이 물러나고 1978년도 임관생으로서 현직 국방부 감사총국장(Inspektur Jenderal)인 아구스 수하르토노(Agus Suhartono) 중장이 임명되었다. 총선, 대선을 성공적으로 끝낸 조꼬 수산또(Djoko Susanto) 국군총사령관에 대한 경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군총사령관 자리가 이번에는 해군 차례가 된다고 가정하면 때조 장군에게 그 행운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이 군 수뇌부에 대한 조기경질은 부패방지 위원회(KPK)와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경찰청 수뇌부를 경질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최근 조각에서 전통적으로 육군이 차지해 오던 내무부장관, 국가정보원이라는 중요 보직을 모두 민간인에게 내준데 대한 육군 내부의 불만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뭉니뭉니해도 SBY대통령의 후계구도에 대한 장기 포석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메가와띠가 딸인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계자로 공식 지목하였듯이 부친의 전철을 밟아 2000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를 후계자로 만들겠다는 욕망이 있을 법하다. 이를 위해 SBY의 처남으로 현 특전사령관인 빠르모노 에디(Parmono Edhi) 육군소장을 전략사령관, 육참총장, 국군사령관의 수순을 밟게 하면서 아구스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해 이번에 에디와 아구스를 위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러나 SBY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도에는 아구스의 나이가 36세에 불과해 과연 대권 후계자로서 나설 연륜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SBY가 향후 5년간 팔목할 지적을 쌓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유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센투리은행(Bank Century) 구제 금융 스캔들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는 SBY 정권이 두 번 다시 그와 버금가는 무리수를 둘 것인지는 의문이다.



행복한 아이 만들기
프 · 로 ·젝 · 트

글: 이진순

행복한 아이의 비밀 1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온지 1년이 채 못 되는 풋내기 교민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지요. 제가 가지고 온 책 중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책들을 보고, 제 주위의 한 젊은 엄마가 일주일에 두 권을 모두 독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마다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미 교실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보를 얻을 곳도 별로 없고, 적절한 부모교육을 받을 만한 곳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여타 가지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아동상담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전공 지식이 도움은 되었지만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더군요. 좌충우돌 실수와 후회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함과 감사도 느끼면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모두 20살이 넘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과 더욱 친밀하게 마음을 많이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곧 부모가 성숙해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듯합니다. 나를 통해 태어난 생명을 잘 양육하여 그의 인생길로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지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울 때마다 정보와 힘을 얻었던 책들을 기초로 하여 아이들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이겠으나 이러한 나눔이 작은 씨앗이 되어 희망의 결실을 바라보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많은 ‘어른들’이 불행한 걸까요? 불행이 미리 입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해온 말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최면을 걸며, 그리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입력된 말들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와 짜증이 섞여 별 생각 없이 내뱉어지는 이런 종류의 말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말대로 되기 쉽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말들은 마치 최면술처럼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자라면서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최면술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별 생각 없이 일정한 어투로 말할 때마다 그것은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최면이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학습의 한 형태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종의 ‘네’ 메시지를 자녀들의 사고방식에다 심어놓게 되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아이들 스스로 떨쳐내지 않는 한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은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내가 잘 알지”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랐다고 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른들은 모든 걸 알겠지. 어른들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거든.’

우리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엄마, 엄마가 다 본다며 왜 얘기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유치원 교사로부터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가 싸웠던 것을 전해들은 후, 그것에 대하여 아이와 얘기할 때 ‘엄마는 네가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집에서도 다 보고 있단다.’라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물론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신뢰도에 따라 그 믿음은 조금씩 수정되어 가지만 말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 ‘나는 이해력이 좋아.’, ‘나는 머리가 좋지.’, ‘나는 창의력이 정말 뛰어나.’, ‘나는 건강하고 힘도 세지.’,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해.’……등등 여러 가지 것으로 계속해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속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요.

‘너’ 메시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똑같이 작용합니다. 상담중인 아이들에게 가끔 자신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저는 못된 애예요”라든지 “저는 우리 집안의 골칫덩이예요”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얘기를 듣지만, 무의식적으로 얘기 속에 감춰진 다른 느낌을 보고 듣고 냄새 맡게 됩니다. 진심과 달리 행복하다느니 사랑한다느니 하고 가장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들은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불명확한 행동을 유발시키며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아이를 기죽이지 않고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나는 오늘 정말 피곤하다.” 혹은 “나 지금 화가 많이 났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분위기와 일치할 때, 크게 상처받지 않고 어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당신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건 결



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답니다. 단지 아이들의 성품이나 성격을 비하하거나 비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모 모임에서 그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너’ 메시지를 불러보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 적었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게으르다, 칠칠치 못하다, 멍청하다, 골칫덩어리, 계집애가 어디……, 쪼그만 한 게 뭘 안다고, 저만 아는 욕심쟁이, 바보, 미친놈, 귀찮은 자식, 지저분한 놈, 경솔하다, 무분별하다, 항상 느리다, 짜증난다, 머리가 나쁘다, 시끄럽다, 배짱이 없다, 정신 사납다, 엄마를 골병들게 한다, 못났다, 평범하다, 유치하다, 꼭지 아비 꼬락서니 닮았네.…… 등등. 사람들은 오래 전에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이러한 말들을 큰 소리로 쏟아내며,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속이 후련하도록 해방감을 맛보는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은 머릿속에 저장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모든 것 - 모든 시각적 이미지, 소리, 대화 등 - 우리가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과 함께 우리 뇌 속에 영원히 저장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기억해내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기억은 저장되어 있고 그 기억들은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 속의 주름진 표면에 우리 인생이 몽땅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간이나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주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상담 중에 “애들은 우리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라고 해서 가끔 신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거나,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거나, 형이나 동생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간접적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녀들에 대해 얘기할 때는 정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십시오.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얘기들은 아이들 마음속으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또 그걸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아이들이 듣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대놓고 칭찬 듣기를 쑥스러워하는 연령의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 남성과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상당히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매일 부드럽고 완곡한 메시지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스트레스가 잔뜩 쌓였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못된 자식, 입 다물지 못해” “차라리 널 낳지 말걸 그랬어.” “넌 너무너무 멍청한 애야.” “네가 아주 날 말러 죽이는구나, 응!”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지나치게 신경이 날카로워진 부모들이 쏟아내는 이런 말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분통을 터뜨린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

스에 의하면, 진짜로 화가 났을 때 그 화는 20초 정도만 지속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문제는 긍정적 메시지들(‘넌 굉장해’ ‘우린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널 보살펴줄게’)에는 분노만큼의 강렬함이나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적당한 비중으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도 자기는 부모에게 귀찮고 실망스런 존재였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불행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아이에게 입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참고서적

김일권, 『유아장애와 치료교육』, 한국특수교육연구소, 1999
 나카니시 요시오,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김정일 옮김, 사계절, 1997
 루프아라지, 『현명한 부모되기』, 이수영 옮김, 소담출판사, 1997
 세키네 마사아키, 『당신의 아이를 칭찬하는 방법』, 조석현 옮김, 장원, 1995
 스티브 비델프,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1』, 전순영 옮김, 북하우스, 2001
 그 외 다수



이 전 순

이전순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와 대학원을 졸업(아동상담 전공)하고 동 대학원과 청주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과와 음악치료 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하고 아동 및 정신치매자, 노인등의 심리치료 및 상담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결혼생활 삼십 년동안 21명 출산한 부인

새색시가 김장 삼십 번만 담그고 나면 늙고마는 것이 인생, 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절을 멈춰 놓으려고 저는 십년 전부터 김장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도네시아 사는 우리 주부들 모두 다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색시가 좋은 시절을 다 보낼 때까지 과연 몇 명의 아이를 출산 할 수 있을까요? 저 희 어머니는 처음 딸 낳고 그 다음 아들 낳고 또 아들을 낳으려다가 딸 여섯 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아야지 하면서 용하다는 의원에게 한약을 지어 드셨지만 어머니는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칠남매를 낳으셨지만 제 고향집 어떤 아주머니는 열 명까지 낳았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새색시가 30여년 동안 21명의 아이를 낳아 떠들썩했습니다. 최다 출산기록으로 연일 방송 신문으로 매스컴을 장식하던 할리마(44세)와 기네스기록 공동보유자 마스웃(55세) 부부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1979년 11월 11일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까지 딸 10명과 아들 10명 그리고 얼마 전 2008년 4월 5일 딸 하나를 더 낳아서 이제는 21명의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화려한 발리시내를 지나 계단식 논을 지나고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소를 물어 찾아가는 동안 나는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궁금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얼마나 늙었을까, 몸매는 어느 정도 망가졌을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건강증이 심해지는데 자녀들 생일은 다 기억할까' 그 많은 식구들이 생활하려면 집은 아주 너르겠지' 하고.

숲속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오솔길 같은 골목길이 끝나고 키 작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지저분한 개울가에 지어진 집, 대나무로 발을 엮어 벽을 삼아 놓은 집, 그건 움막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집 울타리는 그저 들성듬

성 심겨진 야자나무 몇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지붕은 천막보다 못하여 소나기도 새졌고 햇살이 지붕을 뚫고 내리쬐듯 스며들었습니다. 열린 환경이라 지저분한 개울가의 쓰레기가 태양열에 실실 삶아져 냄새가 진동했고, 팔뚝이



김성월
수필가·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가려워서 보면 흰줄무늬모기들이 티셔츠 속으로 긴 주둥이를 주사기 넣듯이 밀어 넣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들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후 일주일 된 아기가 누운 마루는 침대 겸 식탁으로 사용 되었고 머리맡에는 모빌대신 파란 바구니가 끈에 묶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시들어진 야채들과 구워진 생선 몇 마리가 나란히 누워있었고 허공에 매달린 바구니가 부엌의 찬장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좁다보니 가스레인지 놓인 곳에서 신생아 누워있는 곳까지 1미터 남짓 떨어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튀김을 하다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펄펄 끓는 기름은 금방이라도 아기 얼굴에 화상을 입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던 말든 아기는 세상에서 제일 이름답고 귀엽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새근새근 잘도 잤습니다. 내가 아기의 손을 만져 보고 있는데 언제 감았는지 파마머리가 거의 사자머리가 된 19번째 딸아이와 20번째 딸, 그러니까 신생아가 21번째 아이니 그에게는 언니가 되는 셈입니다. 갓 태어난 동생이 사랑스러워 자는 입에 과자를 쭈셔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렸더니 19, 20번째가 그만 ‘으앙’ 하고 우는 바람에 부모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할리마씨에게 같은 여자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뭘 먼저 물어 볼까 생각하는데 그녀가 먼저 나에게 대뜸한다 는 소리가

『Mrs. Kim 혹시 KB 하나요?』

『네, KB?』

‘Keluarga Berencana’ 가족계획 피임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던 질문을 아주머니가 먼저 했으니 나는 금방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간 남자 둘이나 옆에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런 걸 큰소리로 물어 왔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더 큰소리로

『아, KB 그거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고 어깨를 떨며 하는 말

『나는 겁이 나서 못해서요. 무서워요.』

마구 쏟아져 나오려는 언어들 순서대로 내뱉으려는 지 침을 한번 꿀떡 삼키더니

『21번째 아이를 낳은 후 산부인과 의사가 나보고 ‘아주머니 KB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 낳다가는 30명까지도 낳겠어요. 또 당신은 혈압도 높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집에 오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죽는 건 무서워서요.』

할리마씨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나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기가 누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여자와 여자 엄마와 엄마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아기 낳을 때 안 아파요?』

『낳을 때 배가 사르르 아파요.』

나는 배가 찌릿찌릿 아파서 돌돌 굴렀는데 배가 사르르 아프다는 너무 가벼운 그 말에 나는 동의나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출산하다가 생긴 우스운 일은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12번째 아이는 조산소로 걸어 가다가 힘들어 인력거를 탔는데 그 위에서 배가 사르르 아프더니 아기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소중한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아주머니는 무슨 아기 귀저기 같아 채우듯이 아주 쉽게 말하며 현장감중 재현하듯이 자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22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모든 생활과 학비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낳을 계획입니까?』

『나, 이제 아이 낳은 일은 정말 지쳤어요.』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에 시달려서 이제 지쳤다는 말이 어찌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살림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도전적인 희망이 살짝 묻어있었습니다.



할리마씨는 얼마 전 현지신문사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대형 슈퍼에 가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리라고 했는데 너무 즐거웠다고 자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 타는 모습이 즐거웠으며 말 타는 흥내까지 내보였습니다. 화장품이라고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고 그때 처음으로 사과와 배를 먹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하시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 그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뭇해서 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간 라면으로 가족들이 점심으로 먹는데 아이들이 맛있다고 잘 먹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수박 한통하고 아이스크림도 잔뜩 사가지고 올 걸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러 곳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정말 내 주머니의 것을 다 털어 주고 싶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주민등록등본을 보니 총 14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할리마씨네는 식구의 수가 많고 칸이 모자라 두 장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의 매년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리마씨는 발리에서 살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자녀들은 모두 자카르타 근처 뼈말랑 친정집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일 년에 한번 이슬람 며절인 ‘러바란’에 모인다고 했는데 대가족이 움직일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것도 해를 건너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며 신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거절 할 수가 있느냐?’ 하던 그의 남편, ‘잔칫집에 갈 새옷 한 벌만 있었으면 좋겠다’던 할리마씨의 그 소원 같은 말이 자꾸만 내 귀에서 살아 들려옵니다.

그날 집에서 만난 자녀들은 스물 살에 가까운 아들 둘과 사춘기를 막 지난 딸이 하청 받은 천이라며 염색잡업을 했습니다. 『동생이 귀엽지?』 하고 묻는 내 말에 그 사춘기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또 동생 낳을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는 겁이나요.』



크리스마스의 주연(?) 산타클로스, 코카콜라의 전속 슈퍼모델 산타클로스

글: 최양기 편집위원

1997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 위치한 한 예술학교 건물 외벽에 충격적인 그림 하나가 걸렸다. 산타클로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어저 죽어 있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 그린 로버트 세네텔라

(Robert Cenedella)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자 및 해학 예술가이다. 가톨릭 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빔발치는 비난으로 이 그림은 오래 걸리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가 세계적인 풍자 예술가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예수 탄생일”로 기념되어야 하는 크리스마스가 상업주의에 의해 “산타클로스”를 기념하는 행사로 변질된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고자 한 것이었다.

세네텔라의 표현대로 우리는 아기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있어도 산타클로스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세네텔라의 풍자대로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어 아기예수를 우리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든 배후에는 코카콜라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산타클로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3

세기경 소아시아의 파타라(Patara)에서 출생한 성 니콜라스(St. Nicholas)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특히 카톨릭과 보수 개신교는 이 설을 지지한다. 현재의 터키 지역인 미라(Myra) 지방의 주교를 지낸 성 니콜라스는 일생 동안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어린이들 모르게 창문 너머로 선물을 던져주곤 하였다고 한다.

후일 일부 유럽 사람들은 니콜라스의 이러한 선행을 기려 12월 6일을 그의 축일로 지켜왔고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의 산타클로스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이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연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이다. 미국에 성 니콜라스와 관련된 전설이 소개된 것은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통해서였다. 산타클로스의 어원은 성 니콜라스가 네덜란드어로 잘못 표기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한다.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09년 워싱턴 어빙(Washington Irving)이 쓴 “A history of New York”이라는 책에서 말을 타고 마을에 나타난 산타클로스가 묘사되기도 했고 1821년에는 윌리엄 글리(William Gilley)가 쓴 “Santeclaus”라는 시에서는 산타클로스가 털옷을 입고 한 마리의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는 것을 그렸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822년 치과 의사였던 클레멘트 무어(Clement Moor)는 “성 니콜라스의 방문(The Visit from Saint Nicholas)”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산타클로스는 여덟 마리의 순록이 끄는 작은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주러 다니는 요정을 닮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여덟 마리의 시슴은 각기 개성이 있어 사려 깊은 시슴 Comet, 가장 낭만적인 시슴 Cupid, 모습이 우아한 Vixen, 재주꾼인 Dancer와 Prancer, 성격이 불 같은 Blitzen, 여성스러운 Dasher, 가장 근엄하고 엄격한 시슴 Donder 등이다.

당시 산타클로스는 굴뚝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람이었다. 이런 산타의 모습을 뚱뚱하게 바꿔 놓은 사람은 하퍼스 위클리(Harper's Weekly)지의 전속 만화가였던 토머스 내스트(Thomas Nast)다. 그는 산타클로스가 북극에 사는 것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미국이 점점 산업사회가 되면서 드디어 산타클로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1841년 처음으로 파킨슨

를 띄워 “Yes, Virginia, there is a Santa Claus.”라는 제목의 답장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표준화되었다.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항상 웃는 모습의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는 코카콜라의 상사에서 나왔다. 코카콜라는 엄격하고 근엄한 산타를 따뜻하고 인자하게 바꾸어 놓았다. 산타에게 코카콜라를 연상하게 하는 흰색 털이 달린 빨간색 외투를 입히고 커다란 벨트를 채운 것도 코카콜라였다. 1920년대 코카콜라는 겨울 콜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심하던 중 겨울 이미지에 잘 어울리는 산타를 광고 캠페인에 등장시키기로 했다. 초기 광고에서는 선물 배달 후 코카콜라 한 잔을 마시며 쉬는 산타의 모습을 강조했다. 그 이후에는 어린이들이 선물 배달로 피곤한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 코카콜라를 양말 옆에 준비해 두어 산타를 기쁘게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이렇게 하여 1931년에는 산타클로스는 마침내 코카콜라의 전속 모델(?)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

당시 코카콜라의 산타를 그려주던 사람은 상업용 그림을 주로 그리던 하든 선드블롬(Haddon Sundblom)이라는 화가였다. 처음에는 그의 친구를 모델로 산타를 그리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산타로 그리기 시작했다.

선드블롬이 형상화한 산타는 항상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 어린이들로부터 코카콜라를 받는 산타, 장난감에 둘러 쌓인 채 어린이들과 코카콜라를 마시는 산타, 코카콜라를 마시며 어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산타였다.

코카콜라의 막대한 광고와 함께 “선드블롬의 산타”는 전 세계 산타의 표준이 되었다.

1947년 영화 “34번가의 기적 (Miracle on 34th Street)”과 영화 “산타클로스 (The Santa Clause)”에 등장하는 산타도 선드블롬이 형상화한 산타의 모습이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장식에서도 우리는 선드블롬의 산타를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구세군의 산타도 선드블롬의 산타 모습 그대로다.



1881년
토마스 내스트의
산타클로스 삽화

이라는 필라델피아의 상인에 의해 사람이 산타클로스의 분장을 하고 굴뚝에 올라가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산타클로스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등장하는 신세가 되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링컨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토마스 내스트(Thomas Nast)는 북군과 같이 있는 산타클로스를 그려 산타클로스는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다.

점점 산타클로스가 유명해지자 아이들 사이에서도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는가 의문을 가지는 아이들도 생겨나 1897년에는 당시 여덟 살이었던 Virginia O'Hanlon이 뉴욕의 한 신문에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는가 물어보는 편지



코카콜라는 “크리스마스=산타클로스” 이고 “산타클로스=코카콜라”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 소비자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 시켰다. 즉 크리스마스가 코카콜라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펩시콜라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우울하다.

코카콜라에는 못 미치지만 크리스마스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또 다른 기업이 있

다.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라는 대형 백화점이다. 1939년에는 산타클로스의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바로 그 유명한 빨간코의 사슴 루돌프(Rudolph)가 탄생한 것이다. 대형 백화점인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의 광고 카피라이터였던 로버트 메이(Robert L. May)는 어려서 항상 작고 수줍음을 잘 타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코가 빨가서 사슴들에게 왕따 당하는 빨간코의 루돌프를 만들었다.

로버트 메이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안개 낀 크리스마스 이브에 길에 어두워 고민하는 산타클로스로부터 빛나는 코로 길을 밝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줄지에 썰매의 길잡이로 스카우트되는 영광을 얻는 얘기를 지어내어 백화점의 광고에 이용하였다.

10년 후인 1949년에는 이 이야기를 소재로 Johnny Marks가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를 작곡하여 오늘날까지 “White Christmas”와 함께 가장 많이 불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었다. 루돌프가 탄생할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름으로는 Rollo, Reginald라는 이름도 있었으나 Rollo는 너무 가볍고 낙천적인 이름이고 Reginald는 너무 영국적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몽고메리 워드의 사장은 루돌프의 빨간코가 주정뱅이를 연상시킨다고 처음에는 반대했다는 뒷얘기도 있다.

이렇듯 현대의 산타클로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의 실체를 굳게 믿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3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어린이 중 약 85%는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들은 산타클로스는 좀 똥똥하며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며 항상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집이 가난하거나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더 믿는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10살이 넘으면서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의심하는데 선물로 받은 자전거가 너무 커서 굴뚝으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생각에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눈치챈 똥똥한 꼬마가 있는가 하면 자기네 집엔 굴뚝이 없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이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산타클로스의 역할을 한 것을 안 어린이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위해 쿠키와 우유를 준비하고 루돌프를 위해서 당근을 매달아 놓고 자며 크리스마스 아침에 반짝이는 트리 밑에서 자신의 선물을 끌러보는 순간의 기쁨을 1년 내내 간직하면서 다음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린다.

以聽得心,

귀 기울여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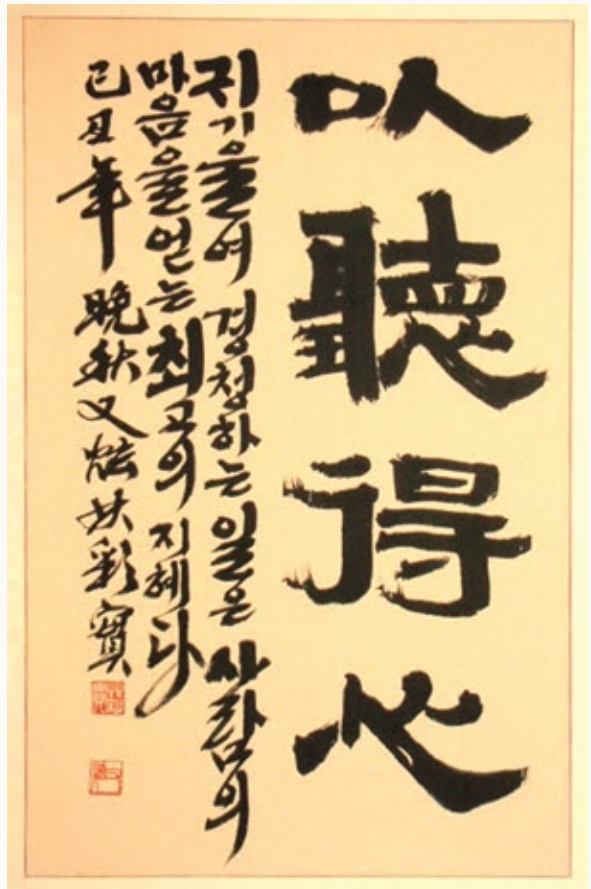
우현 임채실

以聽得心(이청득심)의 의미가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든 것은, 이 말을 선택할 때보다 작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쓰기를 반복할 때였다. 한 점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쓰고 또 써야 하는 것처럼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태 속에서부터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없지만, 소리를 들을 수는 있다고 한다. 이렇듯 모든 인간이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는 오감 중의 하나가 바로 '청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늘 듣기에 인색하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지자면, 가장 처음부터 사용을 한 것이 청각이니 어떤 감각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듣기에 아무런 거스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경청'과는 늘 거리가 멀다. 상대방의 말을 끊기가 일쑤고, 심지어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자기 말만 하다 대화를 끝내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듣는 것이 '귀'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기능에 더 부합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청각의 기능과 듣기 능력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일이란 상당한 마음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참다운 경청이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겸손하면 들을 수 있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내적 공감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먼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선입견, 충고하고 싶은 생각들을 모두 다 비워버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해 받고 싶은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라 하겠다. 경청이 말하기를 절제 하는 것에서부터임을 적극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말하고 싶은 욕구를 잠재우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오죽하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하겠는가.



※ 우현 임채실은 인도네시아 진출 8년 차를 맞고 있으며, 현재 짜까랑 공단에서 전자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색소폰 동호회원, 자필목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서예대전, 서울서예대전 등에 수차 입상을 했다.

'경청'에도 방법이 있다 한다. 즉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 손으로도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겠다. 상대가 자기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도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상은 온통 관계로 얽혀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친척, 친구, 동료 등 온통 관계 지어져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관계의 성공여부가 곧 삶의 성공여부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열쇠인 것이다.

먹과 벼루, 붓과 종이, 그리고 나와의 관계로 인해 모자람 많은 작품 한 점이 세상에 선을 보인다. 진리의 경구를 남겨놓은 옛 선인과 내가 시공을 초월하여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以聽得心> 한 구절이 서예라는 생명력으로 아주 내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순례를 나서는 것이다. 나, 오늘! 세상의 모든 관계에 깊이 감사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정진영(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 동안 두 정사는 지난 6월의 워싱턴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자주 만났다. 그리고 양국 정부간의 정책조율도 매우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호적인 양국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체류시간은 짧았지만 두 정사는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국간의 우애와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우선 양국정사는 한미 전략동맹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의 친구이자 동맹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동북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비중이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위급 협의 채널도 제시하였다. 한미 동맹 역사상 최초로 내년도 양국 외교·국방 장관간 2+2 협의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질적도약의 징표이자,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의 채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양국 정사는 이번 회담을 통해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그 내용과 추진방안 구체화에도 합의하였다. 이로써 북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한한미간 공조를 공고히 한 것이다. 이대통령은 지난 6월의 워싱턴 회담 때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그랜드 바겐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대규모 지원을 교환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서, 지금까지 핵폐기 과정을 잘게 나누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의 조치와 외부의 지원을 교환하던 방식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제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6자 회담의 재개와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제안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핵 해법에 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고, 6자 회담을 통하여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고 북한이 추구하는 소위 통미봉남 전략도 설자리를 잃었다.

한편 이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 경제관계를 동북아의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의 세계금융위기와 달러화의 위상 약화는 모두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경제의 회복과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한미 무역관계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무역적자 규모가 미미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이익에 기초한 21세기 전략동맹의 청사진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두 정사의 잦은 만남과 인적 신뢰가 한미동맹의 미래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북한도발 의도, 제대로 알아야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2009년 11월 10일 11시 28분경 서해는 다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상징하는 바다가 되었다. 북한 함정이 다시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해군함정에 충격을 가했다. 당연히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통해 북한함정을 퇴각시켰다. 우리 군은 북한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왔고, 경고방송 및 경고조치에 불응하여 먼저 조준 사격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도발 당일 성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계근무 중인 북한군 함정에 대해 우리 국군이 충격을 가했다고 우기면서 사죄를 요구했다.

우리 군 당국이 밝힌 '충돌현장에서 진행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해군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 명확하다. 우리 군이 보낸 네 차례의 경고통신, 다섯 차례의 경고사격을 북한해군 경비정이 무시하고, 조준사격으로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북한 함정과 어선이 2009년에만 20여 차례나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그 때마다 우리 군이 보낸 경고통신에 따라 순순히 퇴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준사격으로 경고사격에 대응했다. 앞서 20여 차례와 다른 북한경비정의 군사적 대응은 준비된 도발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도발을 지시했을 것인가?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씨나 북한군의 고위 간부를 지낸 탈북자에 따르면 전선지역에서 북한군이 상부 지시 없이 "총 한발도 마음대로 쏠 수 없다"고 한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북미 직접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결심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허락을 받아 도발을 결심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현 상황에서 왜 도발을 감행했는가? 의형적으로 보면 북한은 생존환경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탈피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유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하고, 미북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화해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준비 중인 제재 탈출 노력과 연계하여 '우발적 도발'로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도발 양상을 고려하면 우발적 도발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1999년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도발을 하고 바로 1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다. 그리고 2002년 두 번째로 서해에서 도발을 하고 난 이후 불과 100여일 뒤에 부산아시안게임에 미너영원단을 보내 대남 유화정책을 보였다. 이러한 과거 도발양상을 고려하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유화정책을 준비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던 것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유화국면을 준비하면서 왜 도발을 하는 것인가? 유화국면은 북한 주민, 간부, 군인의 군사적 긴장을 이완시킨다. 자원이 부족하여 극도의 내핍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체제는 지속적으로 긴장을 확대 재생산한다. 내일이라도 우리 국군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대화국면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송두리째 흔든다. 그래서 북한은 긴장유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의 도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적대적 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에 대화, 경제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말은 못해도 북한당국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곧 한국을 방문하고, 보스위스 대사가 북한 강석주 부외상을 만난다. 북한군인들은 미국과 대화에 목을 매는 북한체제를 보고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북한주민, 군인, 관리들의 심리적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했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변화 유도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서해에 총성이 멈추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주민들을 긴장시키려는 알은 군사적 술수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풍경 속의 풍경

박정자/인니문화연구회 회원

풍경 1, 우리는 새로운 풍경이라

07:00.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는 버스에 올라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모두의 얼굴에서 읽혀지는, 기대로 가득 찬 싱그러운 표정 또한 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풍경이 될 것이다, 여느 때와는 다른.

풍경 2, 초록 모진지를 연주하는 빗소리

10:30. 차밭이 펼쳐져 있는 국립공원 구농 마스 아고르(Gunung Mas Agor).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차밭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차밭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부 자와에서 제일 큰 차밭이라는 이 차밭의 규모는 약 700헥타르, 차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포함하여 1910년에



우기에 접어든 하늘은 옅은 잿빛이다. 어두운 구름이 낮게 깔렸다. 도중에 한두 번쯤 비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도 비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랜만에 만난 정다운 마음들이 안부를 묻고, 이야기에 빠진 동안 버스는 첫 번째 예정지인 뽕작의 차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조성되었다고 하니 역사적인 가치만 해도 상당하다.

차밭의 이랑은 곡선이다. 산비탈이라는 지형 때문인지, 이랑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록의 곡선은 서먹한 마음으로 찾아온 손님을 안심시킨다. 은은한 차의 향기를 멀리서부터 몸으로 먼저 보여준다.

이랑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초록의 곡선과 어

울려 오선지에 그려진 음표처럼 알록달록하다. 세상에 이렇게 감미로운 선율의 악보가 또 있을까.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 풍경, 자연과 사람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나는 재빨리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순간의 악보이기에.

조금씩 내리던 비가 폭우로 변했다. 초록빛 오선지를 연주하는 비의 리듬이 힘차다.

풍경 3, 마음에 킁 하나

12:30. 카페 met Liefde.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맛있게 꾸려나갈 줄 안다고 하던가, 맛있는 음식은 확실히 기분을 고양시킨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준다. 때때로 조금 호사스럽게 느껴지는 음식점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볼 일이다. 이 카페는 파스타와 피자맛이 맛있는 집이라고 한다. 비가 개었다.

풍경 4, 풍경 속의 풍경

14:30. 보고르 식물원. 차에서 내릴 무렵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폭우로 변해 발길을 묶어버린다. 결국 우리는 식물원 안에 있는 카페 'De Daunan'에 모여 앉아 예정에 없던 풍경이 된다. 멋지지 않은가! 예정에 없던 풍경이 되어, 예정에 없던 풍경 속에 갇혀버리다니...

폭우 속에서, 나무들, 풀잎들은 어찌지 못해 온몸을 적시며 그 자리에서 있는 줄 알았다. 생각의 오류 하나를 바로잡는다. 나무들, 풀잎들은 취해 있었다. 빗줄기와 함께 춤추며 흥겨워 있었다. 빗속에서 그들은 결코 수동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능동태였다.

예정에 없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에 취했다. 이야기는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어지고, 살아있는 시간은 이처럼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스스로 감동한다. 우리들은 수동태가 아니다. 우리들

은 능동태다. 생각의 오류를 하나 더 바로잡는다. 삶은 이름씨(명사)가 아니라 움직임씨(동사)이다.

살아있는 시간이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게 느껴지는, 이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화탐방의 힘일 것이다.

풍경 5, 어떤 비오는 날

우리들은 여행을 떠났지
즐거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했지

조금 이상한 여행이었지 출다가
비오다가 햇볕나다가 다시
비가 왔지

우리는 카페에 앉아 젖은
마음을 말렸지 젖은
얼굴이 서로에게 아름다웠지

삶은 여행의 축소판이고
여행은 삶의 한 페이지라는
말이 생각났지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여행이었지
비오고 해나는 것
우리의 일상이니

우리는 카페에 앉아 젖은
마음을 말렸지 젖은
얼굴이 서로에게 따뜻했지



늦가을 들녘의

수수깡처럼

시인, 소설가 이상기

그것이 슬픔인 줄을 안다. 사방이 온통 호랑나비 고치 속만큼이나 고요한데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기만 하는 것이 손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다. TV에서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지껄임만 종일 계속되고, 전화기는 장식품일 뿐, 잘못 걸려오는 것도 없다. 노천명이 눈을 잔뜩 머리에 얹은 채 조용히 방에 들어서서 모습은 떠오른다. '회색과 분홍으로 격한 천장을 사이에 두고 쥐는 나무를 꺾고 나는 가슴을 꺾는다.' 고 그 여자는 적었다. 어쩌면 '상장(喪章)처럼' 슬퍼 보이던 '설야산책'의 그 여자가 지금의 나는 아닌가?

그것이 외로움인 줄도 안다. 어쩌다 맛있는 과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집으로 가져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아. 아프다거나, 사랑하고 싶다거나, 그도 아니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창밖으로는 무심한 차량의 행렬뿐, 아아, 갑자기 자유낙하에 대한 유혹을 받은 것이 몇 번이었던가. 돌아서지도 못하겠다. 내 그림자조차 외로울 것 같아서, 그 외로운 모습에 한 마디 위로의 말도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강물에 떨어진 노을이 강물을 검붉게 울리며 흘러간다. 여기저기 연푸른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참, 이런 날은 갈대와 나란히 흔들려도 좋겠다. 그렇구나. 사람도 외로운 한 포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작은 바람에도 상처입고, 조그만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열 걸음도 안 되는 좁은 방을 쳇바퀴처럼 도는 그것이 몸부림인 줄 안다. 혼자 조용히

물이나 마시고 하릴없이 책 속으로나 기어들어가는 것, 그것도 실은 그저 게으른 놈의 시간 때우기일 뿐이라는 것도 안다. 모래를 한 줌 집어 유리창에 뿌리듯 갑자기 비가 들이치는데 온통 마음을 밖에서 내어주고 나는 늦가을 들녘의 수수깡처럼 젖고 있다. 헐린 집 한 옆으로는 깨어진 독 두세 개가 비를 맞고, 친구와 뛰놀던 마당은 키를 높인 들깨가 줄을 지어 서 있다. 어려서 벗겼던미 사이로 머리 디민 채 숨바꼭질하던 친구는 보이지도 않고 지금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서울서 집이라도 보러 오셨수?" 말 본새나 아래 위 훑어보는 눈꼴도 입맛 사납기는 마찬가지로다.

누가 모르겠는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발목을 잡고 따라다니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작은 촛불을 켜듯, 그래서 몇 발짝 뒤로 그들이 물러서 주기를 바라듯 나는 외로움에게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술을 마시긴 주정을 하긴 그제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다는 향서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바다를 향한 언덕, 이제는 너무 오래 달아놓아서 거무튀튀해진 깃발도 이만큼에서 내리고 싶은 것이다. 돌아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편지도 자주 할 필요 없고 전화는 무엇 때문에 거느냐고 묻기까지 한다. 살다 보면 다시 만날 날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서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말자고 한다. 고마웠다고, 그동안 아주 고마웠다고 예의 바른 척, 미리 다음 번 인사까지 나누고 만다.

그래 놓고, 그대 떠난 지는 이미 오래인데, 검은 미루나무 그림자를 향해 하릴없이 돌멩이나 던지고 있는 것이다. 시냇가에서 물수제비나 뜨며 그가 올지 안 올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화풀이하듯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다수없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새삼 놀라게 되리라. 가을까마귀는 울어도 그만 안 울어도 그만이다. 달이야 뜨건 뜨지 않건 그건 진짜 일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근원도 모를 슬픔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또 다른 그림자요, 외로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의 호수를 흔드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여, 슬픔과 외로움을 무조건 떨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일부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외로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슬픈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라. 열대 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마찬가지로, 인내를 모르는 나무의 과일은 속도 비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고통과 시련만이 진정으로 과일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외로움이나 슬픔도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원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과일나무에는 비와 바람이 왔다 갈 것이다. 새와 벌레가 모여 들고, 찢긴 가지에는 더 많은 생명이 삶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롭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는 꽃을 피우는 것이다. 슬프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나무는 자신에게서 꽃을 불러내 스스로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외롭다면, 슬프다면 우리도 꽃을 피워낼 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무조차, 풀조차 꽃을 피워

기다릴 줄 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 당신이 외롭고 슬프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심장이 탈 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치장하고 길을 나선 건 외롭기 때문이다. 전화기에 대고 화장지를 몇 장 떼어 닦았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건 외롭기 때문이다. 공연히 목젓까지 드러내놓고 웃다가 눈물까지 난 건, 약장수 장단에 엉덩이 좀 흔들다가 힐 굽을 부러뜨린 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미친년처럼 웃어대기라도 하면, 비라도 흠뻑 맞으면, 똥 얘기, 구멍 얘기, 말뚝 얘기라도 지껄이면, 외로움이라는, 진드기처럼,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이 자식이 몇 발짝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다음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도 못하는 자식에게 영어로 써부렁거리다. 한국말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자식에게 세종대왕 얘기를 하다. 짱개 놈, 게다짜 같은, 껌 씹는 소리도 하다. 그런데도 이 자식은 웃으면서 제 나라 말만 시켜면 입으로 끝없이, 주방장 먼 뽐아내듯이 주절거린다. 많이 떠드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떠드는 놈이 이기는 거라면 나는 졌다. 이미 처음부터 지고 들어간 게임이다. 지피도 해야 하고 지기도 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므로 이건 한 판으로 지는 싸움이다. 그래도 가지마다 꽃 피워놓고 서 있는 건, 가뭄에도 푸른 빛 잃지 않고 곱게 웃는 건 외롭기 때문이다. 이래도 오지 않을래? 이래도 얼굴 한 번 보아주지 않을래? 목숨 있는 내내 피울음으로 외치고나 있다가, 노을 불러 문둥이처럼 우는 것, 노을 같은 저승 불러 세상 다 울리고만 있는 것, 게다가 여기에서 한 걸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KORINDO.

편지

용해원

넷물에 씻겨진
작은 돌맹이들의 언어로
아침 이슬의 영롱한 빛으로
편지를 쓴다

글자 하나에 의미를 담고
글자 하나에 사랑을 싣고
글자 하나하나에 날개를 달아
그대 곁으로 날려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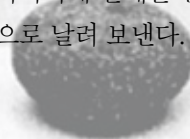
사랑을 할 때면 누구나
위대한 시인이라 하지만
고백은 죄인의 독백처럼
그리도 어려운 것인가

편지의 마지막 점을 찍고서도
어찌할 수 없는 미련이 남아
우체통에 넣으면서도
가슴을 여리게 한다.

애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그대 곁으로 날려보낸다.

애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그대 곁으로 날려보낸다

글자 하나에 의미를 담고
글자 하나에 사랑을 싣고
글자 하나하나에 날개를 달아
그대 곁으로 날려 보낸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도 좋아했던 시인이며 목사님이신
용해원 씨의 편지라는 시를 소개해 봅니다.

용해원씨의 시를 묵상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시를
전달해 주고 싶고 낭독해 주고 싶은 마음에 설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편지지를
고르러 서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
쓰는 일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 카드도 작은 사이즈에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 정작 편지를 쓰고자 하는 사람의
메시지 담을 공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고 새해인데...

많은 분들이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의례적인 카드 한 장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연필을 푹푹 눌러 용해된 시인의 시 문구처럼 글자 하나에 의미를 담고, 글자 하나에 사랑을 싣고, 글자 하나하나에 날개를 달아 날려 보내 보시면 어떨까요?..



수상한 삼형제...

“Keluarga Aneh”

술약국집 아들들이 종영되고 새 주말드라마 수상한 삼형제가 방영 됩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들 모두 다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주인공들 이름도 아버지는 김순경, 어머니 이름은 전과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현찰, 이상 이라고 생각한 아버지 경찰은 삼형제 이름을 각각 건강, 현찰, 이상으로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첫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상처 받은 둘째와 이로 인해 가족 간에 벌어지는 불협화음이 심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수상한 삼형제 라기 보다는 가족 이면서도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신기한 가족들의 이야기 위주로 다루어져 이상한 가족 “Keluarga Aneh” 로 정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에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주어영, 5년 동안 물심 양면으로 보살피며 뒷바라지한 마마보이 애인이 검사가 되자 더 좋은 조건의 여 판사와 연애하려고 어영의 연락을 피하고 심지어 마지막 만남에서 싸움을 말리려 온 경찰 이상에게 지겨워 죽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Dia marah dan **merengek** karena sikapku berubah.

변했다고 난리 치고, 징징대고.

징징대다 : 동사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계속하여서 자꾸 보채거나 짜증을 내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본인을 컨트롤 못하고 무언가를 조른다는 의미입니다.

Merengek이라 하여 사전적 의미로는 Meminta sesuatu dengan menangis-nangis kecil dan belum berhenti permintaan **dikabulkan** (울고 보채며 부탁한 것을 들어 줄 때까지 멈추지 않는 행동을 나타냄)

Kabul 은 어떠한 요청이나 희망 사항이 이루어 지다, 받아들여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 Permintaanku untuk membeli mobil baru dikabulkan oleh ayahku.

아버지께서 새 자동차를 사달라는 요청을 들어 주셨다.

Tuhan telah mengabulkan doaku.

신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기도가 이루어지다) 주셨다.



다 함께 차차차

Mari Berjoget

남편(신욱)이 과거 기억을 되찾고 전 가족들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 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막아보려는 은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현(신욱의 딸)의 가족들이 참석하는 만화 채널 시사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남편 신욱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날 다른 일정을 무리하게 잡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설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엽니다.



Kata kim, jadwalmu ada bentrok.

김 비서 얘기로 당신 일정이 겹친다던데……

Bentrok의 사전적 의미는 충돌, 부딪히다, 엇갈리다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상기 문장과 같이 일정이 꼬이거나 약속이 중첩될 경우 Bentrok 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 Aku masih kacaw karena jadwal hariku **bentrok**.

오늘 일정이 꼬여서 어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

» 의견 충돌

예) Karena kurang berkomunikasi mandor sering **bentrok** dengan buruh.

원활하지 않은 의사 소통으로 공장장과 노동자들 사이에 종종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 서로의 설명이 엇갈림.

예) Penjelasan Yani selisih paham/bertentangan **bentrok** dengan penjelasan Ayu.

야니와 아유의 설명이 서로 엇갈린다. (다르다)

» 물질적 충돌

예) Murid sekolah A dengan Murid sekolah B **bentrok**.

A 학교 학생들과 B학교 학생들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로망의 빈자리는

현실이 채운다.

유 춘 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내가 처음 알게 된 시인은 예이츠이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시작하고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시집이 영미 시선이였다. 아직도 하얀 표지에 금박으로 적힌 제목을 기억한다. 한 쪽 페이지는 영어로, 또 한 쪽 페이지는 한글로 번역 된 시집은 오랫동안 나의 친구였다. 나는 디킨즈나, 바이런보다는 예이츠를 좋아했다. <이니스프리의 호반>은 그 중 가장 좋아했던 시이다.

나는 태생적으로 바이런보다는 예이츠 형의 인간을 아무래도 좋아하나보다. 대놓고 일부러 저지르는 사람보다는 심사숙고형인간이 편하다. 물론 그래서 사랑 앞에서 너무 심사숙고 하는 바람에 한 여배우만 사랑하며 평생 그가 그렇게 홀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기억 한다 그의 시를.

<사랑이 아우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슬픈 영혼은 이제 지치고 피곤합니다.

헤어집시다. 정열의 시간이 우리를 잊기 전에

수그린 당신 이마에 입맞춤과 눈물을 남기고>

그런데 나 말고도 예이츠를 좋아했던 친구가 있다. 우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쪽 같이 다녔고, 학력고사도 같이 준비했다. 방학 내내 자율학습도 학교에서 같이 하고, 걸어서 5분 거리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에 집을 오가

며 같이 밤을 새웠던 친구였다.

물론 결혼해서도 내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인도네시아로 오기 전까지도 늘 만났고, 나의 큰 딸과 그의 큰딸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녔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는 그 둘을 데리고 책을 읽고 글쓰기를 가르쳤다. 물론 그 둘도 역시 우리처럼 절친이다.

인연으로 따지자면 친구와 나의 인연은 길다. 서초동 토박이인 할머니끼리도 아는 분이었고, 사대문안 서울 토박이인 엄마와 이북 출신인 그 애 엄마인 며느리들도 형님 동생하며 친했던 걸보면 대단한 인연이다. 그래서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밤을 새우는 것은 당연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름답지만 종종 혼란스러웠던 인생의 간절기를 시를 외우며 통과했다. 우리는 사춘기도 촘스롭게 고궁이나 국립묘지로 놀러 다니면서 보냈던 것 같다. 그때 찍어 놓은 사진도 죄다 국립묘지의 잔디밭이거나, 고궁의 꽃나무 옆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도 아니고 국립묘지로 놀러 다녔는지 알 수가 없다. 가서 엄숙하게 순국선열에게 묵념을 한 기억도 없는데 말이다. 굳이 이유가 있다면 학생들이 종종 국립묘지 풀뽑기에 동원되던 시절에 너무 익숙해서 그랬다고 할까? 우리가 자주 갔던 곳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는 남산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진을 봐도 촌스러움의 극치다. 남산에 올라가서 예이츠의 시를 외우는 친구를 보면서 그 기억력에 감탄을 한 적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억력은 함량미달인 나는 외우기보다 느끼는 편이었다. 그렇게 예이츠의 시를 외우던 친구가 어떤 일인지 대학에선 일본어를 전공했다.

물론 그 친구가 정말로 예이츠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시를 줄줄 외웠는지는 잘은 모르겠다.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시를 기억하는 걸 보면 좋아하긴 좋아한 것 같은데 최근의 근황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닌듯하다.

오랜만에 친구가 메일을 보냈다. 정확히 말하면 석 달 만에 답장을 한 것이다. 메일을 쓰면 하도 보질 않아서 전화로 메일 보냈으니 확인 하라고 해야만 보는 친구인데 말이다. 전화를 해서 컴퓨터는 오로지 인터넷으로 도넛을 사면 커피를 무료로 준다는 모닝 쿠폰이나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쿠폰 내려 받기를 사용할 때만 켜냐고 난리를 쳤더니 그저 깔깔 웃기만 했었다. 그랬던 친구가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급하게 열어봤더니 작년 초 한국 집값이 떨어질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포착해서 같은 아파트 내에서 평수를 늘려간다고 돌아오면 내게도 집근처의 동으로 이사를 오란다.

급작스럽게 인도네시아에 오는 바람에 겨우 전세나 놓고 온 우리와는 다른 발 빠른 변신이다. 그야말로 살림의 여왕이다. 내가 그 애의 살림 솜씨를 따라가는 걸 아예 포기하고 옆에 묻어가기로 작정한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김장철에 절인 배추를 대량구매 할 때 그냥 업혀가고, 농산물 직거래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면 거기도 슬쩍 끼고, 큰애의 학교행사에 필요한 준비물공동구매에도 슬쩍 끼워줘서 그냥 앉아서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신 나는 아이들 글짓기 대회나 독후감 경시가 있으면 책임지고 가르쳐서 둘이 은상과 동상은 기본으로 건져오게 해줬으니 철저히 상부상조를 하긴 했다.

내가 예이츠 이야기를 하면 너는 글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가 꼭 예이츠 좋아하란다. 본인은 컴퓨터를 배워서 남편이 퇴직을 하면 아이스크림 집이나 빵집을 차릴 때 써

먹을 거란다. 물론 그녀가 집을 옮겨 간 것도 그것을 위한 장기 플랜의 하나라며 한국에 돌아오면 제빵학원에 등록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같이 따자고 했다.

하긴 워낙 우리 둘이 빵을 좋아해서 제빵교실에 다녀서 아예 자격증을 따자고 했었는데, 그만 내가 인도네시아를 오는 바람에 무산됐다.

여전히 책보다는 백화점 카탈로그에서 쿠폰을 오려내고, 세일시즌이면 제일 먼저 전화해서 선착순 대열에 끼워주던 친구가 요즘 어지간히 신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완전 자수성가형인 은행원 남편을 만나서 잠실에 집을 마련하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 평수를 옮겨 갔으니 좋을 만도하다. 살림의 여왕에 재테크의 여왕으로도 머지않아 등극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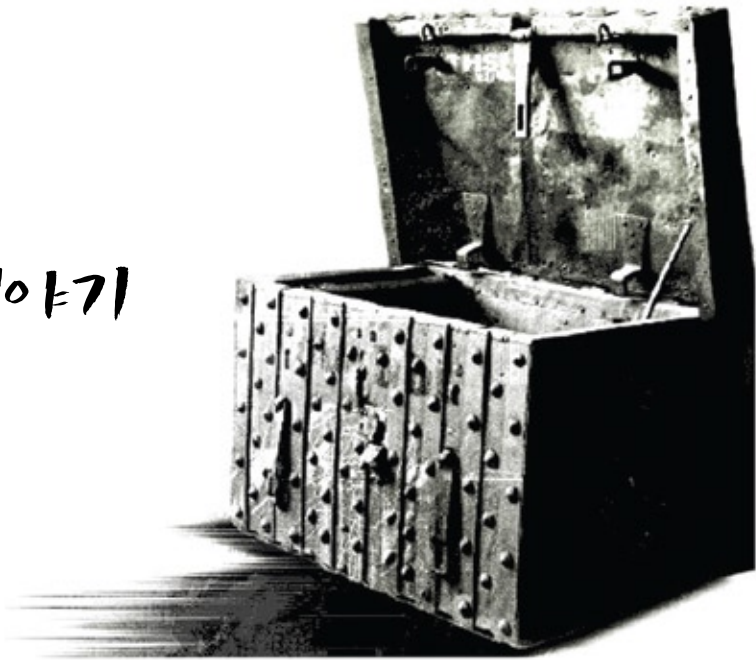
'인간아 그럴 때만 뭘을 보내느냐고 책 좀 읽고, 신문도 좀 읽고, 하루에 한 번 스팸메일뿐 일지라도 메일 체크 좀 하라고 핀잔을 줘도 이 친구는 여전히 깔깔 웃는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을 읽고 후보도 읽는 단다.

아마 두 부부는 이번 주말에도 교회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할 게 분명하다. 남편의 집안이 일제시대부터 건설한 기독교집안이고 모태신앙이어서 남편 따라간 믿음이지만 친구는 진실하게 믿는 것 같다.

같은 추억을 너무 많이 공유한 친구가 요즘은 더 그렇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미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런가보다. 꼭 예이츠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 승철과 김현식의 노래대신 찬송가를 교회에서 부르고 있을 친구를 곧 만나러 간다. 갑자기 일본 영화<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가 생각난다. 이미 나 역시 마음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말이다.

"친구야, 이번엔 제발 집 근처 스타벅스 커피 값이 비싸다고 하나 사서 나눠 먹는 그런 짓은 하지말자. 인생은 종종 약간의 사치도 필요한 법이다. 대신 공정 무역을 해서 커피농가에 보다 더 많이 이익이 돌아간다는 그 커피로 한 잔 때리자. 그 날 눈이 내리면 더 좋고."

도둑 이야기



필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Operation 시작 15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회사의 자산과 관련 수많은 도난 사건들을 겪은 바 있는데 크게는 생산 제품, 자재, 공구, 부품에서 작게는 화장실 수도꼭지까지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별 사건을 분석해 보면 사건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공통된 점은 어떤 식으로든 관리상의 허점이 있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사건과 연루된 수많은 문제 사원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개선을 지속하여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회사의 관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난사건은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사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산관리와 관련 회사의 관리력이 소홀하다면 어느 정도는 사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회사도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 동안 겪었던 여러 사건 중 일부 재미있었던(?) 도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회사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 및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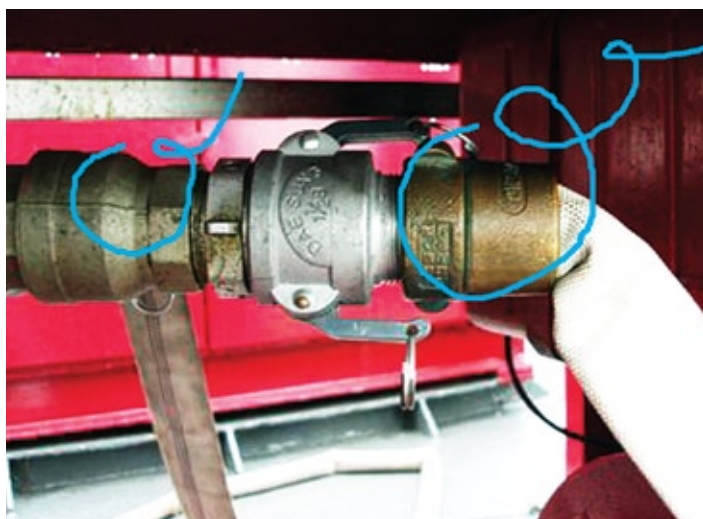
첫번째 이야기...

몇 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사내 매점이 도둑을 맞아 현금 일부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니 야간에 도둑이 매점 옆 강당의 나무 벽을 뚫고 침투하여 금고에 있던 돈을 훔쳐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다행이 많은 돈은 없었으나 야간 근무 사원의 소행으로 보이는 도난 행위를 그대로 방관할 수 만은 없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총무 담당자가 “경찰견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필자는 “무슨 ‘X’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속으로 웃으며 반문하였으나 그래도 상징적 의미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였다. 그 후 경찰견을 데리고 와서 피해 장소를 살피게 하자 경찰견은 사고 장소의 냄새를 맡고는 사내 환경안전센터로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수 차례... 해당 경찰견은 계속해서 동일 장소를 왕복하고 있었다. 이에 총무 담당자는 즉시 환경안전센터 야간 근무인원들을 호출하여 일렬로 세웠는데 경찰견이 한 사원에게 계속 다가가 짚는 것이었다. 총무담당자는 일단 경찰견이 지목한 사원을 인사팀으로 이관하였고 인사부서의 징계 담당자는 문제 사원을 면담 하였으나 해

당 사원은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 하였다. 이에 징계담당자는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잘 생각해 보라”고 하자 문제 사원은 “나는 그런 일을 했다고 느끼지 않는데 오늘 밤에 가족과 상의해보고 내일 결과를 얘기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징계담당자는 “그럼 잘 생각해보고 내일 얘기하도록 하자”고 한 후 해당 사원을 귀가 조치시켰다. 다음날 아침 문제 사원 출근하여 다시 면담을 하자 “가족과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것 같다. 어쨌든 책임을 지고 퇴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퇴직원을 받고 사건을 정리 하였다.

두번째 이야기...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다. 몇 년 전부터 소화전에 있는 동으로 만든 소방호스캡(시가 60만 루피아)이 가끔 도둑을 맞는 일이 있었다. 분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런 것까지 도둑질을 하나 황당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화재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출입문 경비의 검사(사원 및 차량)를 강화하는 것 외에 그리 빠른 방법은 없었다. 어쨌든 도난될 때마다 관련 부품을 다시 구입해서 채워 놓곤 하였다. 그러면서 각 소화전마다 경보기를 설치하여 환경안전센터에서 소화전 개방시 경보가 울리도록 조치를 해놓았다. 그러던 중 환경안전 센터의 벨이 울렸다. 담당자가 급히 소화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소화전은 열려있고 해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 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 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 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당 소방호스캡이 분실된 상태였으며 절도범은 벌써 도망치고 없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경찰견을 활용해보자는 총무과장의 건의가 있었다. “범인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전시적인 효과로 인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되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였다.”

경찰견을 불러 해당장소를 살피게 하고 평소 의심이 가는 협력업체(설비업체) 사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자 한 사원이 슬그머니 옆으로 피하더니 이내 공장 밖으로 도망을 쳐버리는 것이었다. 회사 경비가 쫓아 갔으나 잡지 못했고 문제사원 집으로 가서 대기하였으나 밤새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문제사원은 그날 밤 부인과 함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범행에 대한 자백은 받지 못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하였으나 범인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에서는 협력업체 책임자를 호출하여 책임을 물었고 협력업체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향후 재발방지 및 그간의 피해 상황에 대해 보상하기로 약속을 받고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 도난사건관련 규정: `03년 근로기준법

1. 제158조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a. 회사 소유 물건 또는 돈을 사기, 절도 또는 횡령했을 경우

(2) 상기 (1)항의 중대한 잘못은 아래 증거가 보완 되어야 함.

a. 해당 근로자의 현장 체포

b. 해당 근로자의 자백

c. 해당 회사내 권한을 갖춘 자가 작성하고 최소 2명의 증인이 증명할 수 있는 사건보고서

(3)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해지된 근로자는 제 156조 (4)항에 규정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권한이 있다.

(4) 상기 (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중 업무와 기능이 사용자의 직접적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제156조 (4)항에 규정한 손해보상금 외에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한 자진퇴사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제159조

만일 근로자가 상기 제158조 (1)항의 근로관계해지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분쟁해결기관에 항소한다.



□ 도난사건 처리 방안:

범인이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한 경우는 인사부서 담당자 또는 인사팀장이 직접면담을 하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위의 법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보상금 및 자진퇴사 보상금을 지급한다.(해고보상금 지급은 없음.) 피해상황이 큰 경우나 또는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일벌백계를 위해 상징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가급적 경찰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사원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임)에는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회사의 의지를 밝힌 후 생각할 여유를 준다. 이런 경우 보통은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퇴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속 부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긴 하지만 회사를 단기간 운영하고 말게 아니라면 잃은 소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찾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나머지 더 많은 소를 잃어 버리지 않도록 회사의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관리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전도와 종교건물 건축에 관한 법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증 주인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무종교라고 기재되어 있는 KTP는 단 하나도 없으며 반드시 종교난을 기재해야 한다. 1965년 공산 쿠데타 진압 이래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신앙 혹은 무종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고 공산주의자는 인간이 아닌 가축과 다를 바 없으니 가축처럼 도륙을 해도 괜찮다는 시각으로 중부 자바에서는 수십만의 인명이 살상됐으나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소름끼치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1의 신앙국가이다. Soekarno(수카르노)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이었으나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Soeharto(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은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현재는 상기 6대 종교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전체 국민의 87%가 이슬람 신자로 집계되어 있으며 헌법에 정한 국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나 다를 바 없이 이슬람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슬람이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상기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

되지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구이다. 인도네시아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 인도네시아 종교계에 장기적으로 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사실상 실정법으로 급하고 있는 전도의 문이 제도적으로 열림으로써 종교 전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도 과정에서 서로 용납이 되지 않은 교리 간의 충돌이 예측치 않은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는 특정 종교인의 수가 많은 지역에 다른 종교의 건물(예 배당, 성당, 사원 등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을 건축하는 것도 제도상으로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 헌법,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법률,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 장관령,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 장관령을 조명하여 인도네시아의 종교전도, 종교건물 건축 및 종교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임시적으로 종교건물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신앙이념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아직 건국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1945년 당시 Soekarno를 중심으로 9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의하여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을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따)이라고 하며 Piagam Jakarta(자카르따 헌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i). Ketuhanan Yang Maha Esa(유일신 신앙), ii). Ke-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인간에), iii). Persatuan Indonesia(인도네시아 화합), iv).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perwakilan(대의정치), v). Keadilan sosial(사회 정의) 이다.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5대 건국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2. 헌법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자유 보장

신앙의 자유는 헌법 제29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고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법률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시인 1965년에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하고 있다.

-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만 2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으로 간주되며 2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동 결정서를 보낸다.

-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 3.5. 형법에 제165a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 a.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 b.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4. 종교 전도에 관한 법규

- 4.1.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 4.1.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 이념(Panca Sila)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 4.1.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 4.1.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옷, 음식, 음료,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4.1.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팸플렛, 불레틴, 잡지,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 4.1.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 4.1.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화와 반목을 초래시에는 해당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 4.1.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 4.2. 전도 절차 및 인도네시아의 종교 단체에 대한 외국 원조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11호
 - * 외국 원조란 인력, 물질, 재정,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 *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혹은 전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기관, 재단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4.2.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나 물건, 돈, 옷, 음식, 음료, 치료,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 4.2.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 팸플렛, 잡지, 불레틴, 책 혹은 다른 형태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 4.2.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
- 4.3.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원회(PKK-TLNN)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 4.4.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 4.5.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의 활동,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외국의 지원을 사용하는 일,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5.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법규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5.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FKUB)을 결성한다.

5.1.1. 주 FKUB의 임무

- 5.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 5.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 5.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 5.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5.1.2. 시/군 FKUB의 임무

- 5.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 5.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 5.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 5.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 5.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천을 한다.

5.1.3. FKUB의 구성

- 5.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대 21명,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대 17명으로 한다.
- 5.1.3.2. 주,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교에 포함)는 종교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원이 있어야 한다.
- 5.1.3.3. FKUB에 위원장 1(한)명, 부위원장 2(이)명,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호선 방법으로 선별한다.

5.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5.2.1. FKUB 자문회의 임무

- 5.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 5.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5.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5.2.2.1. 회장: 부주지사
- 5.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 5.2.2.3. 서기: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 5.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5.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5.2.3.1. 회장: 부시장/부군수
- 5.2.3.2. 부회장: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 5.2.3.3. 서기: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 5.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5.2.4. 주,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5.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5.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종교 건물 건축이 해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5.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5.3.3. 종교 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 구비 요건 과 기술 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5.3.3.1. 종교 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5.3.3.2. 종교 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

5.3.3.4.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5.3.3.5.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5.3.3.6. 종교 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했으나 종교 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5.3.4. 종교 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 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4. 종교 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용 허가

5.4.1. 종교 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4.2. 신청서 구비 요건

- 5.4.2.1. 신청서
- 5.4.2.2. 건물주인의 사용 동의서
- 5.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 5.4.2.4. 시/군 FKUB에 보고서
- 5.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5.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 5.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 5.4.3.2. 시/군 FKUB의 소견서

5.4.4. 임시 사용허가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행정구역은 Propinsi(주)-Kota(시)/Kabupaten(군)-Kecamatan(구/면)-Kelurahan(동/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지사는 Gubernur, 시장은 Walikota, 군수는 Bupati, 구청장/면장은 Camat, 동/리장은 Lurah로 호칭한다. 한국의 행정구역보다 한 단계가 더 있다.



MOVIE



여배우들

크리스마스 이브, 패션지 <보그> 특집 화보 촬영을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여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홀로 받는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한 그녀들 사이에서는 예정된 기싸움이 벌어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스튜디오를 감싼다. 화보를 찍을 때도 절대 서로 부딪치지 않게 시차를 둔다는 패션계의 불문율을 깬 이 최초의 시도는 시작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던 것. 의상 선택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급기야 현정의 도발에 지우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불상사로 이어진다. 여정은 자신이 대타로 섭외된 것 아닌지 짚짚하고 민희는 화보 촬영이 즐겁지만 옥빈은 어디까지 선생님이고 어디부터가 언니인지, 선배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주요 소품인 보석이 오지 않자 시작된 하염없는 기다림. 스태프들은 애가 타고 여배우들은 점점 예민해지는데...

그 날 밤,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눈치보지 않고 솔직하고 또 대담한 그녀들 사이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과연 이들은 무사히 촬영을 끝낼 수 있을까?

홍길동의 후예

홍가가족, 낮과 밤이 180도 다른 이유 있는 이중생활!

고등학교 음악교사인 완소남 홍무혁, 온화한 그의 아버지 대학교수 홍만석, 완벽한 주부로 보이는 그의 어머니 명애, 그리고 무혁의 동생이자 고등학교생 찬혁까지! 우아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 해 보이는 이들의 정체는, 낮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밤이 되면 역사에 길이 빛날 의적 활동에 여념이 없는 홍길동 가문의 후예들!

설상가상,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홍길동의 후예들에게 닥친 절대위기!

홍무혁 일가 앞에 등장한 최대의 숙적 이정민! 정 재계를 아우르는 블랙 커넥션의 실세이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의와 불법도 마다치 않는 비뚤어진 세계관의 광기 어린 냉혈한! 그런 정민과 절대 절명의 대결 속에서도 동료교사이자 애인인 연화에게 결혼을 재촉 당하고, 심지어 그녀의 오빠인 검사 재필에게 자신의 실체까지 의심받는 무혁의 위기!

신출귀몰, 2009년 다시 쓰여질 홍길동 가문의 전설!

무혁을 돕던 정보원 수영이 비밀을 지키려고 자살을 선택하자 충격을 받은 무혁은 연화와 이별을 선택하고 일생일대의 작업을 준비한다. 오래 전부터 정민의 뒤를 쫓아온 검사 재필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와 함께 위험천만한 정민의 아이드로 침입하는데 성공한 무혁! 그러나 이마저도 무혁과 재필을 제거하기 위한 정민의 함정이 드러나는데...





여자의 인생은 결혼으로 완성된다

저자 남인숙 | 출판사 시작

80만 독자가 선택한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작가의 여자 인생 결정판 『여자의 인생은 결혼으로 완성된다』. 실용적 사고의 확산과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결혼을 고려하는 여성들도 크게 늘었으나, 아직까지는 부부 중심의 결혼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저자는 3, 40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 조건인 '결혼'이란 화두를 가지고 여성 처세의 문을 두드린다.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 아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의 날개'로 만드는 방법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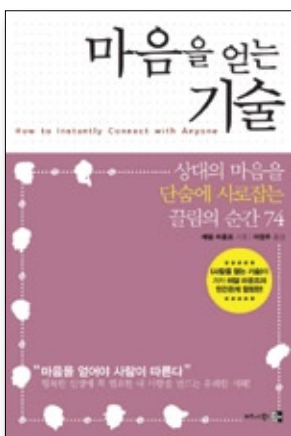


사랑의 인사 - 아침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좋은 생각 365

저자 정용철 | 출판사 좋은생각

하루하루 '좋은 생각'을 접할 수 있는 행복한 이야기 『사랑의 인사』. 저자인 정용철은 자신이 그동안 잡지에 명언을 찾아 실으며 노트에 기록해 두었던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마다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한다.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생활 속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전하며 사랑받고 있는 '좋은생각'의 발행인인 저자는 명언과 그 속에 숨겨진 속뜻을 찾아내어 전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명언들은 감동과 보석같은 깨달음을 품고 있다. 정용철은 좋은 책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삶을 기쁘고 풍요롭게 한다는 믿음으로 명언이 주는 감동과 깨달음을 내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로 엮어서 소개한다. 마크 트웨인, 스티븐 코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켄 키지, 마틴 루터, 마하트마 간디, 톨스토이를 비롯해 동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와 문인, 격언 등에서 찾아낸 삶의 진리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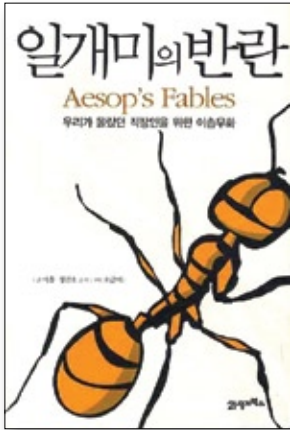
마음을 얻는 기술 -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끌림의 순간 74

저자 레일 라운즈 | 역자 이민주 |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이 책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상황,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감정을 예측하고 교감을 형성해 내 사람을 만드는 74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인간관계는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슬림에서 그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평소에 거슬리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말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상황 74가지를 추려 친구, 가족,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연인 등 어떤 상대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대처법을 제시한다.

가령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방법, 모임에서 외톨이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 회의나 모임에 늦었을 때 쿨하게 행동하는 방법,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방법 등 재미있고 유용한 팁들이 가득하다.



일개미의 반란 - 우리가 몰랐던 직장인을 위한 이솘우화

저자 이솘, 정진호 | 그림 오금택 | 출판사 21세기북스

『일개미의 반란』은 저자가 <직장인이 꼭 읽어야 할 이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각종 저널에 소개한 100여 편 중에서 65편을 묶어낸 책이다. 이 책은 이솘 이야기와 교훈을 직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예화를 곁들여 생동감 있게 재구성한 것으로 저자들의 생생한 그림과 워트 덕분에 더욱 리얼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각하지 않게 박장대소하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데이지의 인생

저자 요시모토 바나나 | 역자 김난주 | 그림 나라 요시토모 | 출판사 민음사

상처와 치유, 상실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데이지의 인생』. 현대인의 일상적인 감성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들로 사랑을 받은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 이 소설은 사고 현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소녀가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나라 요시토모의 그림들이 특별함을 더해준다.



스물다섯 살 데이지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 이모 부부와 함께 야키소바 가게를 꾸리며 어린 데이지를 키우던 엄마는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 데이지를 태우고 운전용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죽어가는 엄마를 사고 현장에서 지켜 본 데이지는 그때의 경험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품게 된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소꿉친구 달리아와의 우정은 데이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열세 살 때 달리아가 이민을 떠나면서 둘은 헤어지고 말았지만, 데이지는 달리아와 나누었던 시간들에 여전히 위안을 받으며 살아간다. 헤어진 후로 데이지는 가끔 달리아의 꿈을 꾸는데, 최근에는 자꾸 불안한 꿈을 꾸다. 데이지는 달리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예감하는데...



SERI 전망 2010

저자 권순우, 신창목 |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은 한 해였다.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시장을 포함하 세계경제 전체가 대공황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8년 10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세계경제는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가 2010년 한 해 동안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 회복의 내용과 성격을 면밀하게 관찰 분석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위험 요인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좌표와 지향점을 제시한다. 우선 지난 1년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향후 세계 및 한국경제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한다.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줄과 뜻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Consulti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r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필라빠가딩)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필라빠가딩)	000000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00000000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지)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지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7-6030 F: 4587-817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styl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Exhibition.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핏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브찌까람)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솔로몬 투어	0813	1934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썸드라 아트스쿨(리보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카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2009.02.1

12월 공지 사항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1.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10.27(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허가 (IMTA) 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 사항

- 사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취득
-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인사, 경리등)에 취업여부 확인
- 단기체류라도 업무 수행 필요시 단기 취업비자 취득

3. 참고사항 : 처벌규정 (인니 노동법)

- 취업허가 없이 취업 : 1~4년 징역형 / 1~4억 루피아 벌금형
- 직책규정 미준수 : 1~12 개월 징역형 / 1천~1억 루피아 벌금형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작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인,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v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1. 인니문화탐방(172회)

2010년 1월 첫째주에 있습니다.

2. 열린강좌

성찬 스님(Asin Sopaka)과 함께 하는
- 보로부두르, 그 화려한 부활 -



일시: 2010년 1월 4일 오후 4시 - 7시 (강의, 질문, 다과)

장소: 한인회 문화회관 (도서관)

십 세기의 긴 잠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일만의 부조
이 엄청난 생명의 이수라
바람 불듯 무심한 전설을
간직한 동방 사원의 화려한 부활
위대한 창조와 꿈이 꿈틀대는
남국의 정열 보로부두르
불교문화의 극치
천 삼백년 전의 흔적을 캐며
부처님의 지혜와 사랑을 형상화한
땅위에 내려앉은 수미산
천 삼백년을 내려다보았을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

-한없는 경이로움 앞에 선다.-

대한항공 12월 성수기 추가운항 안내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성수기를 맞아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합니다.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추가편 운항 기간 :

2009년 11월 24일 ~ 2010년 1월 1일

2. 항공기 운항 시간표 (추가편)

○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 626	화	09.11.24	09.12.29	A332	자카르타	22:05	서울	07:00*1
	금, 일	09.11.27	2010.1.1			00:55		09:50
	월	09.12.28	09.12.28			22:05		07:00*1
KE 625	화	09.10.25	10.3.27	772	서울	15:35	자카르타	20:45
	목, 토	09.11.26	09.12.31			18:05		23:15
	월	09.12.28	09.12.28			15:35		20:45

※ 정부인가 조건임

3. 참고사항

○ 기존 정기편은 변경 없이 매일 운항합니다.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09.10.25	10.3.27	772	자카르타	21:55	서울	06:50*1
KE627	매일	09.10.25	10.3.27	772	서울	15:20	자카르타	20:30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워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일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Y(**희망을 주는**) PARTNER

새벽을 함께 여는, 기쁨을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꿈을 키우는,
멋진, 전문적인, 믿음직한, 말이 통하는,
친구 같은 파트너가 되어 드렸던 외환은행
이제, 모두의 희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EB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본점 : TEL 021) 574-1030, Jakarta Sudirman에 위치한 GKBI 빌딩 20층(BRI II 빌딩 옆)
짜카랑출장소 : TEL 021) 897-3340, Lippo Cikarang에 위치한 Lippo 빌딩 2층(SILOAM 병원 옆)
플라빠가딩출장소 : TEL 021) 4585-6388, Graha Rekso 빌딩 Ground floor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